

석사학위논문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김 용 철

2009년 2월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지도교수 권 인 혁

김 용 철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2월

김용철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위 원 \_\_\_\_\_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09년 2월

A Study on Negotiations between  
the Constabulary and the Militant Group in Jeju  
at the Beginning of the 4·3 Uprising

Kim Yong-Cheol

(Supervised by Professor Kwon In-Hyuk )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9. 2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 Abstract

I. 머리말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자료와 연구내용	5
II.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추진과정	7
1. 국내의 정치정세	7
2. 협상의 추진배경	10
3. 협상의 참가목적	14
1) 김익렬의 의도	
2) 무장대의 의도	
3) 미군정의 의도	
III. 4·28 협상 검토	19
1. 협상의 개최와 경비대의 강경진압 작전	19
2. 협상일과 협상장소	24
3. 협상의 내용과 결과	33
IV. 협상과 오라리 사건	38
1. 협상과 오라리 사건의 관계	38
2. 새로운 해석의 제기 - 「기고문」을 토대로	44
V. 맺음말	50
참고문헌	53
부록	58

## 표 목차

<표 1> 5·10 선거 일정 .....	8
<표 2> 협상 개최 합의과정 비교 .....	20
<표 3> 협상일과 협상장소 비교 .....	26
<표 4> 협상일과 협상장소 기록물 .....	31
<표 5> 무장대의 주장과 협상 결과 .....	34
<표 6> 사상자(1948. 4. 3 ~ 1948. 4. 30) .....	39
<표 7> 전투상황(1948. 4. 20 ~ 1948. 5. 3) .....	41
<표 8> 오라리 관련사건 일지 .....	42

## 지도 목차

<지도 1> 미육군작전지도 부분(1944년 제작, 제주도서부지역) .....	29
--	----

## A Study on Negotiations between the Constabulary and the Militant Group in Jeju at the Beginning of the 4.3 Uprising

### <Abstract>

The Jeju Committee of South Korean Labor Party launched the 4·3 Uprising in 1948, opposing separated elections and separated government. The armed conflict which began with the uprising got fiercer as 5·10 election was approaching. Lots of casualties occurred during the uprising.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changed its early decision on Korea's security on April 17th, 1948, and ordered the ninth Constabulary regiment to quell the uprising. On April 20th, 1948, one battalion of the fifth Constabulary regiment arrived in Jeju province from Busan and began to aggressively suppress the uprising. Especially from April 27th to 29th, the Constabulary stepped up its suppression to undermine the militant group that might make use of the May Day to expand its power. Under such circumstances, negotiations were held between the Constabulary and the militant group to resolve the uprising peacefully.

Kim, Ik-yeol, the commander of the ninth Constabulary regiment which stationed in Jeju during the 4·3 Uprising, left two literary works on the incident. The first one is 「Yugorok」(= memoirs) he wrote in 1969 after retirement and the other is 「Gigomun」(= a contributio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Times in June 1948 during the uprising. There exists a cruci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ks.

According to research result so far, a negotiation was held on April 28th, 1948 to resolve the uprising peacefully, but broke down due to Orari arson incident. The negotiation has been considered as almost the only opportunity to resolve the uprising peacefully. This view confirms to the content of Kim's 「Yugorok」.

「Gigomun」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Times, however, says a different

stor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re was another round of negotiation on April 30th, 1948. This indicates that the collapse of the negotiations was not directly linked to Orari arson incident. So far, too much meaning has been imposed on Orari arson incident. There is a presumption that the police deliberately plotted the incident to break off the so-called '4·28 negotiation.' An examination into the development of the 4·3 Uprising, however, found that the incident wa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incidents committed in other villages at the time.

So far, the content of Kim's 'Yugorok' has been accepted as true. The researcher believes this is because of a lack of discovery and criticism of historical materials on the uprising. In spite of lots of its contradicting statements, 'Yugorok', a book written two decades after the uprising, is being cited a lot with little doubt about its authenticity. Therefore, the researcher tried to present a new argument o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Constabulary and the armed militant group by analyzing 'Gigomun', an article published in the International Times, which a negotiation participant contributed. The negotiation was supposed to break down. The militant group launched the uprising, opposing separate elections and separate government. They could not agree to separate elections.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ould not just sit idle and watch the militant group's resistance against 5·10 separate elections, because it wanted to justify its presence in Korea through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5·10 separate elec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a peaceful resolution was virtually impossible.

# 제주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 I. 머리말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 제주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봉기하였다. 단선·단정 반대를 주장하며 봉기한 무장대는 결국 제주도의 5·10 단독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봉기의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피해는 실로 상당한 것이었다.<sup>1)</sup>

제주4·3사건<sup>2)</sup>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이 사건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사건 발생 후 40여 년 간 학술적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본격적으로 연구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10월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4·3진상보고서』)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그간의 연구 성과가 정리되는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4·3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의결과가 집약되어 출간된 『4·3진상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 1) 희생자의 수에 대해서는 2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신고를 받고 심사·결정한 희생자가 13,564명에 이르는 사실을 볼 때 그 희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8월 22일 현재 727명이 추가로 심사를 받는 중이다.
- 2) 제주4·3사건에 대한 성격규정은 항쟁, 사건, 폭동 등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여전히 과제로 제기될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필자는 성격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더라도 논리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4·3사건’은 ‘4·3사건’으로 줄여서 쓸 것이다.
- 3) 허호준, 「언론을 통해 본 제주4·3진상규명운동의 역사와 4·3재평가」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 제주도기자협회 제25회 기자포럼, 2003, 14~17쪽.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sup>4)</sup>

이 정의에서는 4·3사건의 발생 기점과 무장대가 봉기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4·3사건은 무려 7년 7개월(1947. 3. 1~1954. 9. 21) 동안 제주도 일원에서 전개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4·3사건의 초기상황을 다루고 있음으로 연구시점을 1948년 4월 3일 이후부터 같은 해 5·10선거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시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1948년 4월 3일 봉기로부터 5월 10일 선거일까지는 무장대의 공세기(攻勢期)에 속한다.<sup>5)</sup> 이는 5·10선거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실례로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선거가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무장대가 주장하는 단선·단정 반대가 제주도민에게 일부 수용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무장대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기간 동안에 진행된 중요한 사실은 경비대와 무장대가 4·3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상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이른바 ‘4·28 협상’이라고 알려진 협상이다.<sup>6)</sup>

지금까지 이 협상에 대한 연구는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 2』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글에서 제민일보 4·3취재반은 협상의 당사자인 당시 제주

4)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536쪽.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하여 다른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용원, 「5·10총선거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투쟁」 『한국사시민강좌』 제38집, 2006, 129~130쪽.

5) 박명립, 「제주도4·3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8, 95쪽.

6) 필자는 협상이 4월 28일에 열리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협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협상방법이 무장을 배제한 형태였을 뿐, 참가 세력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해결이 가능하지도 않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전체를 통해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비대와 무장대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협상을 이른바 ‘4·28 협상’과 구별하기 위하여 협상으로 서술하였다. 협상일을 특정하여 4월 28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4·28 협상’으로 서술하였다.

도 주둔 경비대 제9연대장인 김익렬(金益烈)의 유고록(遺稿錄)(이하 「유고록」)을 토대로 1948년 4월 28일 구억국민학교(현재 대정읍 구억리에 소재)에서 ‘4·28 협상’이 열렸으며, 1948년 5월 1일 오라리 사건<sup>7)</sup> 등에 영향을 받아 결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고록」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며, 나아가 이 주장은 미군정이 1948년 4월 27일부터 강경진압을 본격화했던 배경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4·3진상보고서』(2003), 박명림(1988), 김창후(1993), 문순보(2001), 함옥금(2004) 등이 『4·3은 말한다 2』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이런 입장과는 달리 이운방<sup>9)</sup>은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1993)<sup>10)</sup>을 통해 김익렬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그는 「유고록」에는 무장대의 요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시는 무장대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기임을 들어 무장대가 사실상 항복하고 있는 「유고록」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즉 성사되지 않은 협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이 1948년 4월 28일이며 협상장소는 구억국민학교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양정심 또한 『제주4·3항쟁』(2008)에서 「유고록」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무장대의 봉기목적은 볼 때 ‘항쟁의 의지’를 꺾어내고 4·3항쟁의 성격을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정심도 이운방과 마찬가지로 협상 당시는 무장대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라고 하면서 무장대가 협상에 임한 이유를 ‘경비대의 중립 유지’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양정

7) 이 사건은 우익청년단이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12채의 집에 방화를 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 4장에서 다룰 것이다.

8)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박명림, 「제주도4·3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8;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년 봄호, 1993;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1, 47~48쪽;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 1983;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9) 이운방은 1909년 대정면에서 태어나 대정초등학교, 제주공립보통학교, 전북 고창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독서회 활동을 하며 항일운동에 참여하였고 1933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자 생활을 하였다. 1945년 해방 후 대정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에서 선전부장으로 활동했으며 1945년 말 경에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 1946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대정면책이 되었고 1947년 3·1절 기념대회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10월형을 언도받아 목포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1948년 3월 경 석방되어 같은 해 여름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1979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 거주하고 있다.(김창후, 「4·3항쟁의 생존자 이운방을」 『사회평론』, 1992)

10) 협상에 대하여 서술한 이 책의 2장 “구억리회담에 관하여”는 1989년에 쓴 것이다.

심 역시 협상일과 협상장소에 대해서는 4월 28일과 구억국민학교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금까지의 협상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유고록」을 이 협상에 대한 유일한 기록으로 인식하여 연구를 진행했다.<sup>11)</sup> 특히 「유고록」의 내용이 일부 수록된 『4·3진상보고서』가 2003년 정부에 의해 공식보고서로 인정됨으로써 이러한 주장이 더욱 굳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협상 당사자의 유일한 기록이라는 위상(位相)이 협상일과 협상장소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기 어렵게 했던 것이다.

다만 이운방과 양정심처럼 ‘4·28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봉기 전후의 맥락을 근거로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결렬되었다는 수준의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고 「유고록」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1989년 이전의 연구에서는 일부 다른 주장들도 발견되고 있어 주목된다.<sup>13)</sup>

필자는 이 문제가 4·3사건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 중 하나로 인식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협상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을 확인하였다. 즉, 협상의 중요 당사자였던 김익렬이 1948년 8월에 국제신문<sup>14)</sup>에 기고했던 수기(이하 「기고문」)이다. 그런데 이 「기고문」은 기존에 협상과 관련한 유일한 기록으로 평가되었던 「유고록」과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두 기록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여 협상의 실체(實體)를 추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근거로 볼 때 전자의 주장은 다소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연구에서는 첫째 협상이 4월 28일에 열렸는지 그리고 그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 오라리 사건이 미군정의 정책을 강경일변도로 변경하는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일

1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71쪽; 신상준, 『제주도4·3사건(하)』, 334쪽;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2003, 76쪽.

12) 『4·3진상보고서』는 협상과 관련하여 『4·3은 말한다 2』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13) 노민영 엮음,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도4·3항쟁의 기록』, 온누리, 1988, 50쪽; 박용후, 『최남의 항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140쪽; 부만근 편, 『광복제주30년』, 1975, 51쪽.

14) 당시 국제신문의 발행·편집·인쇄인은 이봉구이고 주필은 송지영이다. 신문은 2면으로 발행되었다. 1948년 7월 16일자로 휴간중인 「민보」를 계승하여 발행을 시작하였고 1949년 3월 6일 폐간된 신문으로 정부수립 전후 중앙 5대지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도우익지로 분류되고 있다.(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 자료 현황」 『역사와현실』, 1995)

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들은 만일 '4·28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4·3사건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경비대에 의한 강경 진압이 이미 4월 27일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5·10선거를 앞두고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를 주장하며 봉기한 무장대와 남한의 단독선거를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자신들의 남한 점령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미군정 사이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타협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해결방법이었다. 이러한 추론을 근거로 이 연구에서는 경비대와 무장대 간의 협상이 사실상 성사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자료와 연구내용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 연구에는 194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국제신문에 연재됐던 「기고문」을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필자가 확인하기로는 이 「기고문」이 협상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기고문」이 4·3사건 연구자들 사이에 공식적으로 거의 연구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1948년에 이미 이 「기고문」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르포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sup>15)</sup> 연구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김익렬의 「기고문」과 「유고록」을 주된 연구자료로 삼아 중요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는 방법을 취했다. 경우에 따라 이 자료 외에 협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4·3사건에 관한 구술자료 역시 참고했다. 특히 이들 자료들을 활용하여 1948년 4월 28일과 5월 1일을 전후한 시기의 전투상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고록」의 내용에

15) 홍한표의 글 「동란의 제주도 이모저모」 『신천지』(1948. 8)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전 제9연대장이며 당시 국방경비대의 제주도 최고지휘관으로 있었고 반란군 측의 최고지휘자라고 하는 **김달삼과 회견하였던 김익렬(金益烈) 중령은 그의 수기의 첫머리에서(강조-필자) 대략 다음과 같이 그 원인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이미 당시에도 김익렬은 수기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기는 그동안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대한 진위(眞僞)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면(裏面)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협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2장에서는 경비대와 무장대 간의 협상 추진배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건을 수습하려는 제주도 유지(유력 집단)들의 노력과 이와 관련된 각 세력의 협상참가 목적을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협상의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토대로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48년 4월 27일부터 본격화된 강경진압과 이른바 ‘4·28 협상’의 모순점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제대로 분석되지 못한 사실들을 지적하였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오라리 사건과 협상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기고문」의 사료적 가치를 통하여 협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기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견해들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순전히 단순하면서도 개인적인 의심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오라리 사건을 접할 때마다 기존의 연구들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오라리 사건은 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건들과 다른 점이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라리 사건은 바로 앞서 열렸던 협상 결과를 뒤집는 사건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어 혼란스러웠다. 더욱이 ‘4·28 협상’이 4·3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기로 언급되고 있는 점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다. 즉 이 논문은 지금까지 ‘4·28 협상’으로 알려진 협상의 개최일자와 개최장소 그리고 협상과 오라리 사건의 연관성에 대한 재해석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료 부족과 필자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협상에 대해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II.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추진과정

### 1. 국내외 정치정세

5·10선거<sup>16)</sup>가 결정되고 미군정은 선거의 성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전개했다. 5·10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였기 때문에 이승만(李承晩)과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우익세력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지지받는 선거는 아니었다. 또한 소련 역시 완강하게 거부할 뿐만 아니라<sup>17)</sup>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부에서도 이 선거 실시에 대해 분란이 있는 상황이었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남한만의 총선거에 대해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 8개국 중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즉각 실시하자는 제안에 찬성한 국가는 필리핀과 중국 2개국 뿐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엘살바도르, 프랑스는 경찰제도의 우선 변경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하면서 조건부로 지지하였다. 시리아는, 유엔총회의 결의는 한반도 전체의 선거이므로, 유엔소총회는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미군정으로서의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세력들을 억누르면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만일 이 선거가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으로서의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18)</sup> 그러므로 미군정은 성공적인 선거실시를 위해 유권자 등록률과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했다. 이는 한국인이 미국과 유엔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소련과의

16) 1947년 11월 유엔은 한국에서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1948년 1월 북한과 소련은 유엔대표단을 38선 이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 가능성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후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정되어 5·10단선이 실시되었다.

17) 평양방송은 “위원단에 속한 모든 나라는 달리에 팔린 꼭두각시”라며, “남한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등 임시위원단과 남한 정치세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양군(미군·소련군-필자)의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이 밖에도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 진영의 선전은 남한사회에 소문으로 무수히 떠돌며, 단선과 단정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장영민,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년 여름호 제41집, 2007, 130~131쪽)

18) 장영민, 앞의 논문, 2007년 여름호 제41집, 2007, 125쪽.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다음의 <표 1>은 전체적인 5·10 선거일정이다. 표는 무장봉기가 4월에 일어나는 배경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sup>19)</sup> 미군정은 유권자 등록률을 높이기 위하여 극우세력 단체와 공공기관을 총동원하였다. 등록을 강요하고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적색분자’로 취급한다고 협박하거나, 교사들은 학생을 통하여 부모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sup>20)</sup> 다른 한편 미군정공보원을 통하여 선전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선전내용은 첫째 유엔의 존재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알리는 것, 둘째 미국의 대한정책과 민주적 선거실시를 믿게 하는 것, 셋째 민주주의 선거의 원리와 방법소개, 넷째 남북협상의 여파를 차단하고, 다섯째 반공선전과 역선전을 강화하는 것 등이었다.<sup>21)</sup>

<표 1> 5·10선거 일정<sup>22)</sup>

날 짜	내 용	비 고
1948년 3월 7일	선거법 공포	
3월 30일~4월 8일	선거인 등록	4월 9일로 연기
3월 30일~4월 15일	입후보자 등록	4월 16일로 연기
4월 13일	선거인 명부 작성 기일	
4월 14일~4월 20일	선거인 명부 총람	
4월 17일	투표용지 모형 공시	
5월 4일까지	투표 장소 공시	
5월 7일까지	의원후보자 사진 제출 마감	
5월 8일까지	투표소 설치 준비 완료	
5월 10일	투표와 투표록 작성	처음에는 5월 9일
가급적 속히	선거인 결정 통지와 선거록 작성	

19) 4월에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한 폭력행위는 주로 5·10선거에 따른 선거인 등록을 저지하는 시도에 맞춰졌다.(제주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II』, 도서출판 각, 2001, 108쪽)

20)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제10집, 2000, 33~34쪽.

21) 장영민,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2007년 여름호 제41집, 2007, 137~145쪽.

22) 조선일보 1948년 3월 28일 기사를 근거로 표 작성.

이러한 내용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강연<sup>23)</sup>, 이동교육열차<sup>24)</sup>, 야학생을 위한 성인교육<sup>25)</sup> 등이 이용되었다. 또한 미군정은 「세계소식(World News)」<sup>26)</sup>, 「농민주보(Farmers Weekly)」<sup>27)</sup>를 발행하여 선거와 관련된 기사들을 실었으며, 이 신문들을 비행기를 이용하여 전국의 교통과 통신이 어려운 벽촌(僻村)에까지 산포(散布)하였다.<sup>28)</sup>

이렇듯 미군정은 5·10 단독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국회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종적인 유권자 등록률은 91.7%이다.<sup>29)</sup> 당연히 이승만 정권은 집권 후 자신들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근거로 국회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를 이용하였다.<sup>30)</sup> 그러나 미군정의 통계 중에는 이와 다르게 79.7%로 나타나고 있는 자료도 있다.<sup>31)</sup> 이를 근거로 볼 때 미군정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등록률은 사실상 80% 정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커 보이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전국 투표율이 91.7%라는 국회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64.9%의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3) 여기에는 전문적인 연사들이 참가하였다. 1948년 2월에는 40여명이 연사가 남한 각도에서 63,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강연을 하였고, 3월에는 연사 총원이 13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24) 사람들이 서커스열차라고 불렀다. 강연, 영화, 연극, 선전물 배포, 여론조사 등을 수행하는 오늘날로 치면 연예 홍보단 격이다.

25) 해방 후 야학 등을 통하여 문자를 해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다.

26) 1947년 6월 미군정이 창간한 주간신문, 한글로 2면으로 간행되었다. 무료로 행정기관과 농민들에게 뿌려졌다.(김영희, 「미군정기 미디어 집착의 성격과 영향」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언론학회, 2005)

27) 1945년 12월 22일 미군정청 공보과에 의해 창간되어 군정청이 철폐될 때까지 발간된 순한글 신문으로 농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된 신문이다.(정다운, 「주한미군의 선전활동과 농민주보」, 서강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5)

28)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제10집, 2000, 32쪽.

29) 조선일보 1948년 4월 14일; 경향신문 1948년 4월 15일.

30)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제10집, 2000, 28쪽.

31)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Office of Administration Census Division, Inclosure No. 143, 『UN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I, 755쪽.



## 2. 협상의 추진배경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봉기가 일어난 후 장기적인 대립양상을 보이자 도내 일부에서 사건의 수습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4월 17일<sup>32)</sup> 오후 오현중학교에서 시국 좌담회가 열렸고 회의를 끝낸 후 지역 유지를 중심으로 시국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33)</sup> 이는 비단 4·3사건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는 대부분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늘 있기 때문이다.<sup>34)</sup>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유지들을 중심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다.

시국수습대책위원회는 당시 도지사인 유해진(柳海辰)을 위원장으로 하여 32명으로 구성되었다.<sup>35)</sup> 이 위원회는 제1회 회합을 18일 하오 2시 제주읍사무소 2층에서 열기로 하고 산회(散會)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제1회 회합이 열렸고 수습을 위한 쌍방의 교섭과 민생 문제 협의 등이 토의되었으며, 교섭위원에는 박명효(朴明效)<sup>36)</sup>를 포함하여 7명이 선출되었다.<sup>37)</sup> 하지만 아직까지 이 대책위원회가 더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였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익렬이 김달삼(金達三)과 만나는 것이 수습대책의 일부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익렬이 「유고록」을 통해 자신이 5번째로 협상대표로 가게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sup>38)</sup> 제주도 미군정장관 맨스필드(J. Mansfield) 중령<sup>39)</sup>은 김익렬을 불러 폭도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협상을 추진하고자

32) 제주신보에는 4월 18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제주신보 같은 날짜의 다른 기사를 보면 제1회 회합이 전일에 이어 18일 하오 2시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좌담회는 17일에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3)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34) 1901년 이재수봉기의 경우 대정군수 채구석과 제주군수 김창수의 회유노력이나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시기 수습대책위원회가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5)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36) 박명효는 당시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1945년 도제(道制)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도제실시 후 194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 14일까지 초대 북제주군수를 역임하였다.(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편, 『道伯列傳』, 2006)

37) 제주신보 1948년 4월 20일.

3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0~312쪽.

39) 당시 맨스필드의 계급은 중령이다. 그러나 「유고록」에는 앞부분에서는 중령, 뒷부분에서는 대령으로 기록

하는데 협상 책임자들이 불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귀순공작의 책임자는 유해진 지사였으나 급병을 구실로 불참하였고 다음은 김정호(金正浩) 경비사령관이었지만 그도 역시 급한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였다고 말했다. 세 번째가 제주도 경찰감찰청장 최천(崔天)이었지만 급병을 이유로 불참하였고 네 번째가 제주도 민족청년단장이었는데 그는 협상장소로 갔지만 ‘폭도’의 대표가 나오지 않아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익렬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상에 나서게 되었으며 지역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협상준비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sup>40)</sup> 이와 관련해서는 「기고문」에도 언급이 있다.

관계에서는 제주도 유지와 관공서원이 주동이 되어 시국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민족청년단이 주동이 되어 시국수습특사대(時局收拾特使隊)를 조직하고 반란군 측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 좋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sup>41)</sup>

이 내용은 도내의 유지를 중심으로 평화적으로 시국을 수습하려는 논의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단편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해 볼 때 민족청년단 등의 해결 노력도 시국수습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유고록」의 다른 내용들이 일부분 과장되어 있음을 볼 때 협상 참가자로 여러 유명인사들이 거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협상을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군경에서 나온 자료들은 대체로 국방경비대의 오일균(吳一均) 소령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오일균 소령은 김달삼과 접선하면서 경비대는 특별작전보다도 정치적, 사상적으로 대원들을 회유시켜 세포조직을 확대하여 결국에는 연대장과 일부 장교를 암살하고 반란군과 합세하자는 모의를 하였던 것이다. 오일균 소령의 계략에 의하여 김달삼은 연대장인 김익렬 소령에게 만나서 한번 이야기나 해보자는 제의를 해

---

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중령으로 표기하였다.

4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09~310쪽.

41)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현행에 맞추었다.

왔다. 이리하여 연대장과 대대장인 오일균 소령, 연대정보참모 이윤락 중위(제3기생) 등 3명과 상호협상을 한바 있었다.<sup>42)</sup>

이에 의하면, 협상을 제기한 쪽이 무장대이며 경비대 오일균 소령의 계략으로 성사되었다는 주장이다. 김익렬은 이에 속아서 협상을 한 것이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경비대 총사령부에서 진상을 조사하였고 당시 김익렬의 부관인 이윤락 중위가 파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익렬 중령은 협상과 관련하여 상부의 지시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43)</sup>

그날(협상일인 30일-필자) 밤부터 시작한 작전회의와 최고부의 명령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제는 반란군의 근거지를 알았으니 곧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와 김달삼과의 회견은 하나의 전략(戰略)적인 것이라고 최고부에서는 말하였다. 나는 그 의도는 전략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고...<sup>44)</sup>

이에 따르면 협상과 관련하여 김익렬 개인만이 아니라 작전회의와 최고부<sup>45)</sup>의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김익렬은 협상과 관련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였을 것이다.

나(김익렬-필자)는 이 사실(협상을 하기로 한 사실-필자)을 맨스필드 중령에게 보고하고 상세한 지시를 요청했다. 당시 군정장관 맨스필드 중령은 경찰의 패전과 무능력에 실망하고 있었고 장차 자기에게 떨어질 상부의 문책을 염려하던 중이었으므로 희망과 용기를 되찾아 회답에 임하는 요령 등을 즉시 나에게 알려왔다.<sup>46)</sup>

4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解放과 建軍, 1967, 438~439쪽. 김익렬이 소령으로 서술됨.

43)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93쪽.

44)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45) 작전회의와 최고부에 대하여 다른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그러나 작전회의는 맨스필드 중령과 김익렬 연대장을 포함한 제주도 미군정 수뇌부의 회의로, 최고부는 당시 통위부 또는 국방경비대의 최고 지휘부로 판단된다.

4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5쪽. 이 인용문 첫 문장에 나온 맨스필드 중령에게 보고하는 내용은 여러 정황 상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맨스필드의 태도는 (이

이 자료에 따르면 김익렬은 당시 제주도 군정장관인 맨스필드에게 협상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익렬은 협상을 독자적으로만 추진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사건의 발생 후 도내 유지들로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던 점과 김익렬이 이를 위해 도내 유지들을 만나고 있었고 상부에도 보고한 것 등을 볼 때<sup>47)</sup> 협상이 오일균의 계략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도 이 내용을 고수하는 주장들이 있다.<sup>48)</sup> 그리고 김익렬이 이 때문에 해임되었다는 주장도 있다.<sup>49)</sup> 더 나아가 이 때 김익렬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정부수립 후 사태를 평화롭게 해결하려 했던 것이 인정돼 군에 복귀하였다는 주장도 있다.<sup>50)</sup>

그러나 이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보인다. 김익렬은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에서 해임되기는 했지만 군사재판에 회부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익렬은 1948년 5월 6일 제9연대장에서 서울총사령부로, 같은 해 6월 16일 여수의 제5여단제14연대로, 같은 해 7월 15일 서울 총사령부로, 같은 해 8월 5일 온양의 제1여단제13연대로 각각 옮겨 갔다. 어디에도 군사재판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박진경의 피살 후 문상길 중위 등에 대한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는 것을 볼 때<sup>51)</sup> 조사를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sup>52)</sup> 이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8월 5일 온양의 제13연대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윤락 중위는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sup>53)</sup>

논문 3장에서 다룬) 슈 보고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4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6쪽.

48) “제9연대장은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 폭동주모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가지기도 하였다. 협상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2002, 119쪽)

49) “제9연대장은 오일균 대대장의 계략에 말려들어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달삼과 비밀협상을 가졌다. 그러나 협상은 결렬되고 공비들과 불법적인 협상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연대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책으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가 파면되었다.”(정석균, 「신자료에 의한 4·3사건의 실제」 『군사』 제45호, 2003, 16쪽)

50) 부만근 편, 『광복제주30년』, 1975, 51쪽; 박용후, 『최남의 향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140쪽.

51) “13일 공판은 김익렬(金益烈) 중령의 증언(강조-필자)과 당시의 제주도 총참모관인 정일권(丁一權) 대령으로부터 5월 3일 이후 직접행동을 하도록 명령하였다는 증언이 있었고...”(경향신문 1948년 8월 14일)

52) “나는 박 대령(박진경-필자) 암살주범으로 의심을 받고 서울로 소환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47쪽)

53) 육군본부의 이윤락에 관한 기록은 1948년 8월 15일 중위 진급 기록이 마지막이다.

### 3. 협상의 참가목적

#### 1) 김익렬의 의도

그렇다면 협상에 참여했던 무장대와 김익렬의 의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미군정은 또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하였는지 검토해 보겠다.

최초 미군정이나 내가 판단한 폭동의 원인은 제주도에 이주하여 온 서북청년단원들이 도민들에게 자행한 빈번한 불법행위가 도민의 감정을 격분시켰고 그 후 경찰이 서북청년단에 합세함으로써 감정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급기야 극한의 도민 폭동으로 전개된 것이었다. ... 작전계획은 ①제9연대가 진압책임을 지고 ②사건발생 당시 폭도들은 경비대를 적으로 삼는 것을 회피하였으므로 경비대가 중간에서 쌍방을 격리하고 ③일정한 냉각기를 둔 후 범법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면 사건은 진압된다는 것이 골자였다.<sup>54)</sup>

낮에는 농부고 밤에는 반란군에 가담하는 일이 많은 소위 「산사람」의 정체를 분별하기 어려운 도외(島外)에서 온 경찰대(警察隊)의 무차별 사살은 상호간 너무나 엄청난 살생이 생겼을 뿐더러 무력(武力)으로써는 도저히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그러나 경비대의 근본방침은 사살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그러함으로 경비대가 좌익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한 가지 조건이기도 하였다. 동족상쟁하는 싸움마당에서 다 같은 민족끼리 더구나 단일민족인 우리 대한국민으로서 차마 총부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속일 수 없는 민족적 감정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한다.<sup>55)</sup>

위 내용은 김익렬 중령이 사건의 해결에 있어 강경진압보다는 선무에 의한 방법을 우선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익렬 중령은 무장대의 봉기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sup>56)</sup> 4·3사건의 근본원인을 도민과 서북청년회<sup>57)</sup>의

5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1994, 286쪽.

55)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56) 「기고문」에서는 일관되게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57) 서북청년회(西北靑年會)는 1946년 11월 30일 결성되어 1948년 12월에 공식 해체된 극우반공단체이다. 관

감정대립, 일본·제주·육지 간의 중간무역의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민들의 정치·경제적 고통이 사건의 중요 배경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무활동을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초기 국방경비대의 정치적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뱀부(Bamboo) 계획<sup>58)</sup>에 따라 추진된 경비대 제9연대의 모병광고<sup>59)</sup>에는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殉國)하려는 젊은이들의 애국 군사기관이다. 우리들은 모국(某國)의 주구(走狗)도 아니고, 일개 정당의 이용기관도 아니다. 다만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추진시키고 밖으로는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려는 국가의 간성이다.”라고 밝히고 있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경비대의 이러한 성향이 김익렬에게 영향을 주어 사건을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히려 「기고문」에 서처럼 경비대가 좌익이라는 언급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sup>60)</sup>

## 2) 무장대의 의도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봉기한 무장대는 5·10 선거를 앞두고 이 협상에 참가했다.<sup>61)</sup>

9연대 연대장 김익렬(金益烈)이가 사건을 평화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인민군대표(人民軍代表)와 회담하여야 하겠다고 사방으로 노력 중이니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면 국경(國警)의 산(山) 토벌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4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전후 2회에 걸쳐 군책(軍責)과 김(金)연대장과 면담하여 금반 구국항쟁의

서(평안도)와 관북(함경도)에서 ‘서북’이라는 명칭을 가져왔으며, 38선 이북 출신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이상기, 「서북청년회와 해방정국의 암살자들」, 1992, 월간 말 1992년 7월호)

서북청년회와 서북청년단이 구별없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서북청년회로 서술하였으며 인용문에서는 원문에 실린 그대로 서술하였다.

58)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제35집, 2002, 290쪽.

59) 제주신보 1947년 4월 28일. 물론 경비대에 일본군 출신들이 상당수 간부로 들어간 것을 볼 때, 경비대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60) “그러나 경비대의 근본방침은 사실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그러함으로 경비대가 좌익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한 가지 조건이기도 하였다.”(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61) 박명립, 「제주도4·3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8, 95쪽. 논문에서 저자는 4·3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을 5개의 소시기로 구분하여 1948년 4월부터 1948년 5월 중순까지를 제1기 초기 민중무장대의 공세기로 규정하였다.

정당성과 경찰의 불법성을 특히 인민(人民)과 국경(國警)을 이간시키려는 경찰의 모략 등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김(金)연대장은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음.<sup>62)</sup>

무장대의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글은 협상을 시도하는 김익렬을 이용함으로써 경비대의 작전을 억제하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무장대가 협상에 참여한 가장 큰 목적은 경비대의 중립적 태도를 지속시키는 것이었다.<sup>63)</sup> 협상이 열린 시기는 여전히 무장대가 힘을 유지하고 있었고 봉기의 최고 목표인 5·10단독선거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항복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64)</sup>

4·3사건 초기에 무장대는 경비대와 교전을 피했다. 제9연대 역시 초기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경비대는 4월 17일 미군정에 의해 진압참가 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을 치안상황으로 간주하였다. 무장대의 의도는 이 상황을 최대한 지속시켜 적대세력을 최소화하려는 것이었다.<sup>65)</sup> 더구나 4월 20일 부산에서 제5연대의 1개 대대가 증파되고 4월 27일부터 경비대의 공격이 강도를 더해가자 무장대로서는 이러한 공격을 피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sup>66)</sup> 사건 초기와는 달리 경비대가 본격적으로 진압에 참가하는 것으로 상황이 변화되었던 것이다. 무장대로서는 경비대가 중립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또한 무장대는 5·10단선을 파탄시킨다는 중요한 목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즉 경비대의 중립을 확보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5·10단선거부라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하여 협상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3개의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가 무효가 될 정도로 무장대는 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음을 볼 때 항복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였다는 것은

62)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1995, 78쪽.

63)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102쪽.

64) 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185~195쪽.

65) 양정심, 앞의 책, 선인, 2008, 102쪽; 이운방, 앞의 책, 1993, 187쪽.

66) 이와 관련하여 다른 방향의 증언이 있다. 무장대가 이를 자신들의 선전에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경비대가 무장대에 협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무장대의 세력이 강함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다는 증언이 있다.(박근호, 2008년 10월 3일 필자 채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sup>67)</sup>

### 3) 미군정의 의도

4·3사건은 미군정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4·3사건과 관련해서 미군정이 자유롭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정은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할 때에는 늘 “최대한 온정”, “귀순하면 포용할 것” 등을 밝힘으로써<sup>68)</sup> 평화적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형식적으로나마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무장대의 주요 주장이 단선·단정의 반대임을 감안할 때 단선의 완성을 통한 단독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던 미군정과는 사실상 평화적인 사태해결의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sup>69)</sup>

미군정은 자신들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였다.<sup>70)</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무부와 경비대의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다.<sup>71)</sup> 미군정은 1948년 4월 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전남의 경찰 100여명을 응원대로 파견하였다. 계속하여 4월 20일 부산으로부터 제5연대제2대대가 총원되었고<sup>72)</sup> 4월 27일부터는 경비대가 본격적으로 동원된 강경진압이 시도되었

67)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서 출판된 소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미군정이 대중 속에서 반(反)선거투쟁을 하는 세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협상에 대한 또 하나의 분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적어본다.

“적들의 목적이 《5. 10》을 무난히 치르는데 있었다면 봉기자들 측에서는 이 망국과 분렬고착의 《단선》을 저지파탄 시키는데 궁극적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투쟁형태가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선거날을 전후로 해서 각 선거구들에 무장대를 파견하는 식의 반 《선거》투쟁이 적합하겠는가 아니면 화평회담을 계기로 제주도내의 핵심력량들이 도민들 속에 들어가 반 선거정치공세를 벌려 더 많은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는가. 이 두 길에서 《정화담판》을 무장투쟁으로 달성한 유리한 국면으로 삼고 택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심각한 론쟁 끝에 도달한 결과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물론 이 《정화담판》 제의를 끝까지 믿고 여기에만 모든 것을 의탁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않았을 것이다. (중략) 이 기회에 비전투인원들, 놈들의 무참한 살육을 피해 산에 오른 늙은이들과 녀인들, 어린이들과 로약자들을 합법적으로 하산시킬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속에 강력한 반 《선거》공작성원들을 넣어 무장투쟁에 합법적인 투쟁까지 배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놈들의 제안이 모략극인 경우 취해야 할 제2의 안이었다.”(양희선, 『한나의 메아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2000, 322~323쪽)

68) 1948년 4월 5일 “제주비상경비사령부 김정호 사령관 포고문”; 1948년 4월 14일 조병옥의 선무문; 1948년 4월 19일 경무부 공보실장 김대봉의 “제주 동포들에게 드리는 멧-세지”; 경무부는 미군정의 기관으로 이를 미군정의 입장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69) 조병옥은 “공산당이 존재하는 한 소요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여 평화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의 보고서, “제주도 상황의 해결에 대한 견해” 1948년 7월 23일)

70) 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제7권, 2003, 237~238쪽.

71) 4·3위원회, 앞의 책, 2003, 237~240쪽.

72) 대대장이 오일균 소령이다. 오일균이 4월 10일에 제주도에 왔다는 주장도 있다.



다. 이러한 미군정의 태도를 볼 때 평화적인 수습대책이란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비대 측의 요구대로 통과를 보게 되었고(협상은 성사되었고-필자) ... 내가 경비대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 그러나 그날 밤부터 시작한 작전회의와 최고부의 명령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제는 반란군의 근거지를 알았으니 곧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와 김달삼과의 회견은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라고 최고부에서는 말하였다. 나는 그 의도는 전략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30일-필자)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고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여 왔으며...<sup>73)</sup>

이 「기고문」은 협상이 추진된 이유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김익렬의 생각과는 달리 미군정은 강경진압이 일관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한편, 미군정 경무부도 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30,185명이던 경찰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sup>74)</sup> 그리고 선거를 방해하면 좌우를 막론하고 엄중처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선전하였다.<sup>75)</sup> 이러한 태도에서 볼 때 평화적인 해결의 가능성은 무장대가 항복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73)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74) 동아일보 1948년 1월 4일/5일, 3월 7일/24일.

75)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8년 4월 3일.

### Ⅲ. 4·28 협상 검토

#### 1. 협상의 개최와 경비대의 강경진압 작전

협상 참가 세력들의 의도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협상은 개최되었다. 그러나 협상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협상의 당사자였던 김익렬 중령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남겼다. 그 중 하나는 당시에 기록한 「기고문」이고<sup>76)</sup> 다른 하나는 20여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유고록」<sup>77)</sup>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에 대한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협상의 내용을 재구성하고자 한다.<sup>78)</sup>

다음 쪽에 나오는 <표 2>는 협상 개최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한 것이다. 경비대와 무장대 간의 연락은 보통 때는 전단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경비대와 무장대 간의 연락방법으로는 유일한 것이었다.<sup>79)</sup> 두 기록에서도 이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전단으로 연락을 하고 최종 결정은 직접 대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기고문」에는 무장대의 연락원이 찾아 왔다고 확실하게 기록되었음에 반해 「유고록」에는 이윤락과 지역유지들이 적지에 왕래하면서 협상을 추진하였다고만 기록하고 있어 협상 개최 합의 직전의 연락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이는 「유고록」이 협상이 있고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쓰여진 것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76)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연재된 수기이다. 신문에는 1948년 6월에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77) 제민일보 4·3취재팀이 발굴하여 세상에 알린 김익렬의 유고록 「4·3의 진실」이다.

78) 한 사람에 의해 쓰인 두 개의 기록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유고록」은 1969년 김익렬이 중장으로 예편한 후에 기록한 것이고 「기고문」은 협상이 있는 지 100일이 지나지 않은 때에 기록된 것이다. 따라서 쓰인 시기만을 놓고 볼 때 「기고문」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기록 중 「유고록」이 먼저 알려짐으로써 「유고록」의 기록이 정설처럼 굳어져 인정되는 상황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바로잡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

7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71쪽.

〈표 2〉 협상 개최 합의과정 비교

일시	기고문	유고록	비고
1948년 4월22일	협상제의 전단 산포(散布)	※ 구체적인 날짜 없음	(유고록)
1948년 4월24일 06시	무장대, 전단으로 회답:신분보장 요구	맨스필드 중령이 귀순공작 지시 → (미CIC에서 김익렬에게 초토화 작전 공작) →	이윤락 중위와 지역 유지 수차례 적지 왕래
1948년 4월25일	경비대, 신분보장 전단 살포	민간협력자 확보 → 전단 살포 → 회답전단 → 협상일 4월 말로 결정 → 김익렬	(기고문) 경비대, 반란군의 세력만회가 우려된다며 27일부터 29일까지 맹렬한 전투 개시
1948년 4월26일	무장대, 협상수락 전단: 29일 12시에 회견하되 장소는 추후 통보함	맨스필드 중령에게 보고 → (날짜 미상)오전11시 이윤락이 무장대의 연락 전달 : 시간 13시, 장소는 무장대가 안내	(기고문) 연락원, 공격이 심하였음과 무조건 항복 전함
1948년 4월29일 12시	무장대연락원 경비대 방문: 30일 12시 안덕면 산간부락에서 협상제의		

또한 미군정에 대한 보고에서도 차이가 있다. 「기고문」은 미군정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작전회의” 또는 “최고부” 등의 기록이 있어 미군정이 사실상 연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고록」에는 이 부분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다른 인물이 추진하다 실패한 것<sup>80)</sup>, 미 CIC 요원의 초토화 회유공

80) 「유고록」에 따르면 김익렬은 5번째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 유해진 지사, 김정호 제주도 비상경비사령관, 최천 제주도경찰감찰청장, 제주도 민족청년단장 등 앞서 4명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3인은 무장대와 적대 관계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협상에 상대로 나갈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그런데 「기고문」에는 이 3명의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지 민족청년단장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작<sup>81)</sup> 그리고 협상 개최결정 후 맨스필드 중령에게 보고한 것 등 미군정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를 보면 맨스필드와 미 CIC 요원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했을까? 『4·3진상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상이 4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슈 중령이 제주도에서 펼쳤던 작전인데, 왜 4월 28일로 예정된 평화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지 의문이다.<sup>82)</sup>

이 의문의 해결은 필자가 보기에 협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의문이 풀리면 「기고문」과 「유고록」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4·3사건에서 협상이 차지하는 위상과 오라리 사건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슈(M. W. Schewe) 중령은 1948년 4월 27일 12시 비행기로 제주도에 도착하여 3일 동안 제주도 상황을 확인한 후인 4월 29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sup>83)</sup>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대는 4월 27일부터 강력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제주도의 한국5연대 전 병력은 4월 27일 12시 30분에 시작하여 마을을 휩쓸었다. 항공관측자들(6사단 소속 조종사 포인덱스터(Poindexter) 중위, 미군정 소속 번즈(Burns) 대위)은 통위부 부대가 매우 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바다로 향한 모든 출구와 모든 도로는 봉쇄되었고 경비부대들은 질서정연하게 거리를 행진하여 가옥과 건물로 들어갔다. ... 작전은 마을로 통하는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가옥을 수색하여 숨겨진 무기, 삽, 곡괭이, 도끼, 전선절단기 등을 찾아내고 또 용의자, 단체 조직가,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군대의 감독 하에 작전에 참가해서 민간인 인사들을 수색하는 것이었다.<sup>84)</sup>

81)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2~314쪽.

82)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96쪽.

83) 그의 임무는 제주도 주둔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을 만나 섬의 상황을 평가하고 활동을 관찰하며 제주도의 민간인에 대한 통제와 게릴라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맨스필드 중령이 제안한 계획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84) 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제7권, 2003, 238쪽.

만약 협상이 4월 28일 개최되었고 이 협상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와 같은 대대적인 작전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협상이 지금 알려진 것처럼 4월 28일이 아니고 또한 4·3사건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면 위 작전에 대해서 수궁할 수 있을 것이다.

四월 二拾六日 또 뼈라가 전달되었다. 『경비대의 신사성(紳士性)을 믿는다. 二十九日 十二시 경에 회견하되 장소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회답이 왔다. 이 뼈라를 받은 경비대에서는 즉시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담진행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으나 5·1 메-테(메이데이-필자)를 앞둔 四월 말이니만치 방금까지의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二十九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반란군 측의 세력을 만회(挽回)시키고 5·1 메-테의 모종행사에 큰 힘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하여 二十九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의를 보게 되어 二七, 二八, 二九 三일간은 맹렬한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이 전투는 제주도 소탕전 중 제일 격렬한 전투였고 이 전투로 반란군의 보급선의 일부를 단절하였던 것이다.<sup>85)</sup>

경비대가 본격적으로 전투에 개입한 것은 4월 20일이었다. 부산에서 제5연대 제2대대가 증원부대로 도착하면서 본격화된 경비대의 작전은 협상을 앞두고도 계속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익렬은 왜 작전이 강화되었는지 밝히고 있다. 5월 1일의 메이데이를 앞둔 시점에서 반란군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격렬한 전투를 펼쳤다는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미군정의 최대의 과제는 5·10선거의 성공적 수행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모든 작전의 목표는 5·10선거의 성공적 수행에 귀결점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슈의 보고서에서 다시 확인된다.

1. 24군단 G-3(작전참모부-필자) 타이센(Tychsen) 대령의 지시에 따라 슈 중령은 48년 4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도로 향하였다. 그(슈-필자)의 임무는 제주도 주둔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을 만나서 섬의 상황을 평가하고 활동을 관찰하며 제주도의 민간인에 대한 통제와 게릴라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맨스필드 중령이 제안한 계획**(강조-필자)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결과보고가 사령부에 제출될 것이다.

2. (중략)

---

85)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3. b. 4월 28일 행해질 2번 작전계획은 경비대의 김대령,<sup>86)</sup> 문소령, 드루스 대위, 한국경찰 고문관 번즈 대위, 그리고 메리트씨 등에 의하여 철저히 논의되었다. 슈 중령은 시종일관 그 논의에 참석하였지만 오직 참관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한 미군사령관은 제주도에서 작전은 성공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주도에서 한국안보를 책임진 군대의 성패에 대하여 남한인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김대령에게 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김대령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었다. 김대령은 정확히 이해하였으며 경비대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4. 장래의 작전

a. 3번 작전-맨스필드 중령은 4월 28일 12시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4월 29일의 작전은 5연대와 9연대가 제주와 모슬포에서 시작하여 노루악을 향하여 휩쓸 것인데 그 이유는 무장대들이 그 쪽 오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sup>87)</sup>

이 내용은 제주도 산악을 완전히 휩쓰는 작전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맨스필드의 계획으로 보인다. 맨스필드 역시 군경의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유고록」에 나온 맨스필드의 태도는 실재와 다른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대대적인 작전을 통해 무장대를 약화시키고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미군정의 계획은 맨스필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과 같은 내용을 볼 때 4월 28일을 앞두고 대대적인 작전을 펼친 것에 대한 의심은 해소되고 있다. 즉 협상은 28일에 열린 것이 아니다. 또한 협상의 의미도 그리 크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비대의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지는 시기에 협상은 이루어졌다. 무장대가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는 했지만 경비대가 본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함으로써 상황이 변하고 있었다.

86) 이 김대령은 경비대 제5연대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에 주둔한 제5연대는 1개 대대였으므로 부산의 본대를 두고 연대장이 제주도에 와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정황을 토대로 유추해 볼 뿐이다. 슈 중령의 보고서 원문(4·3위원회 편, 『제주4·3사건자료집』 제7권, 466~468쪽)을 보면 곳곳에서 대령과 중령 계급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맨스필드와 슈 자신의 계급을 처음에는 Lt. Col.(중령)로 표기하였지만 다음에는 거의 Colonel(대령)로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보고서에 나오는 Colonel Kim을 김대령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 또한 맨스필드의 작전을 확인하러 상급기관인 24군단(미군정청)의 중령이 내려오는 상황에서 제주도 주둔 경비대 제9연대장인 김익렬이 논의에 참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슈의 보고서에 나오는 Colonel Kim이 김익렬 중령일 개연성은 있다고 보인다.

87) 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제7권, 2003, 238~240쪽.

## 2. 협상일과 협상장소

지금도 여전히 ‘4·28 협상’은 4·3사건에서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sup>88)</sup> 이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유혈사태<sup>89)</sup>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5월 1일 오라리 사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지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협상은 4월 28일에 있었으며 오라리 사건은 5월 1일에 일어났다. 4일의 차이가 난다. 김익렬은 이에 대해 협상이 성사된 후 전투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는데 오라리 사건이 조작됨으로써 강경진압으로 나가게 됐다고 「유고록」에 기록했다. 그리고 「유고록」이 널리 알려진 이후 협상이 있었던 날짜와 장소는 4월 28일과 구억국민학교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고문」과 「유고록」을 비교해보자. 「유고록」에는 협상일이 특정한 날짜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곳에서 ‘4월 말로 결정’<sup>90)</sup>,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은’<sup>91)</sup>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것을 근거로 지금까지 협상일이 4월 28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기고문」에는 이와 달리 4월 30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二十九일 상오 十二시에 정보부(情報部)에는 광목잠뱅이에 밀짚모자를 쓴 三十四, 五세의 중년 농부가 연락으로 경비대를 찾아왔다. ... 그는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三十일 상오 十二시에 안덕면(安德面) 산간부락(강조-필자)에서 회견할 것을 제

88) “이 평화협상은 제주4·3사건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이었다. 협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유혈사태가 벌어졌고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92쪽)

89) 엄밀한 의미에서 유혈사태와 무장대의 봉기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4·3사건 시기에 민간인 학살(여기서 말하는 유혈사태의 본질은 이것이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무장대의 봉기 때문에 민간인을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장대의 죽음과 민간인의 죽음은 다른 것이다. 무장대는 단선·단정을 반대하며 봉기를 했으므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목숨을 건 투쟁이 있을 것이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민간인은 다르다. 설령 민간인이 무장대를 지지했다고 하더라도 학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압군 측에서 민간인과 무장대가 구별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간인을 전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반(反)인권적이다.

90) “이렇게 해서 연대장과 폭도 두목과의 평화회담의 날짜가 4월 말로 결정되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6쪽)

91)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은 ‘메이데이’ 날이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전예원, 1994, 332쪽)

기하고 공격이 심하였음을 말하는 한편...<sup>92)</sup>

「기고문」에는 협상날짜는 4월 30일, 협상장소는 안덕면<sup>93)</sup>의 산간부락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김익렬은 협상이 있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5월 6일에 최고수뇌회의 직후 제9연대장의 자리에서 물러남으로써<sup>94)</sup> 짧은 기간에 자신의 신상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협상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의 혼란을 겪을 시기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협상일은 지금까지 알려진 4월 28일이 아니라 4월 30일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 협상은 비밀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에서도 단편적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협상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것은 4월 22일과 4월 25일에 협상시도 전단을 뿌렸다는 기사<sup>95)</sup>와 UP통신사 서울특과원 5월 2일을 인용하여 “미국 당국에서는 제주도의 좌익 게릴라대는 우익 측과 화평교섭을 개시하였고 경찰이 무장을 해제하고 폭압행동을 취한 경관들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습격을 정지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기사<sup>96)</sup> 정도이다. 무장대가 기록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기록은 확인된 것이 없다. 결과적으로 협상에 대해서는 김익렬이 유일하게 기록을 남긴 것이다. 그리고 「유고록」이 먼저 알려짐으로써 지금까지 협상일이 4월 28일로 알려졌던 것이다.

<표 3>의 협상일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고록」의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4월 말경 또는 4월 30일<sup>97)</sup>에서 4월 28일<sup>98)</sup>

92)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93) 안덕면은 무장대에서 전달한 장소로 1회 나오고 있으며 앞뒤의 맥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깊이 있는 분석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거의 전부가 구역리로 서술하고 있고 안덕면은 구역리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은 생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94) 김익렬의 전임(傳任)은 미군정의 4·3사건에 대한 진압정책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김익렬 후임 연대장인 박진경 지휘 하에 검속된 사람들의 수를 비교하면 추정이 가능하다. 박진경의 재임 중 검거자가 수천 명에 달한다.(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221쪽)

“전 연대장 김익렬(金益烈) 중령이 있을 때에는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빠라 등으로 선무공작을 했으나 박대령이 내임하자 직접 공격명령을 내리고 만약 부락민이라도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사살해도 좋다고 하였다.”(한성일보 1948년 8월 14일, 박진경 암살범 재판기록 중)

95) 독립신보 1948년 4월 30일.

96) 조선일보, 대동신문 48년 5월 3일, 독립신보 5월 4일.

97) 4월 30일로 기록된 것은 김익렬, 「동족의 피로 물들인 제주참전기」,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 8일; 부만근, 『광복제주30년』, 1975, 문조사; 김남식, 『남로당연구 I』, 돌베개, 1984; 조남수, 「4·3진상」, 『월간관광 제주』, 1988; 박용후, 『최남의 항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4월 말경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존 메릴, 「제주도반란」, 1975; 양한권, 「제주도4·3폭동에 관한 연구」, 서울



〈표 3〉 협상일과 협상장소 비교

일시	기고문	유고록
1948년 4월29일 밤	집에서 유서 2통 작성	※ 날짜 기록은 없음 - 협상 전날 저녁, 상관·친구·처자·형제에게 남길 유서 작성
4월30일 아침	부대에서 장정들에게 인사	- 협상일 11시 경, 이윤락 중위가 무장대의 연락을 가지고 옴:시간 13시, 장소는 무장대가 안내
4월30일 아침	부관 2명, 운전사 도합 4명이 출발	- 부대원 연병장 집합, 협상 사실 알리고 훈시, 17시까지 귀대하지 않으면 살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전투개시를 지시
	20마일 지점 지난 후, 농부군인 안내자 만남	- 12시 정각, 걸어서 정문을 나감 - 지프 운전병, 이윤락 중위 도합 3명 출발 - 대정면사무소를 지나 산길로 향함
	해발 300미터 지점 지난 후, 수3인의 여인 보초 만남	- 부대에서 직선으로 15km지점 (연대본부가 보일 정도의 고지 마을), 목동이 안내 : 황색기신호, 국민 학교로 가라고 안내
출발 1시간30분 후	40마일 올라옴, 초가삼간 앞에 도착	- 학교도착, 운동장에 500~600명의 무장대 밀집, 미제카빈이 많았고 일부가 99식, 200명 정도가 무장
4월 30일 12시 경	12시 조금 전, 운전수 제외한 3인이 방에 들어감, 김달삼도 방에 들어옴	- 7~8평의 다다미방, 좋은 가구, 예쁜 탁자 ※ 협상장소에서 연대본부 보임 - 16시30분경 협상 마무리 돌입
1948년 4월30일 4시 경	16시가 지난 후 부대로 복귀	- 귀대 약속시간(17시) 후 귀대 (협상장소에서 경비대가 트럭을 타고 출동 준비하는 것 보임)

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88.

98) 4월 28일로 기록된 것으로는, 장창국, 「육사 졸업생」, 중앙일보, 1983; 제민일보 4·3취재반, 김익렬 장군 실록유고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1994;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2; 함옥금, 「‘제주4·3’의 초토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소위 오라리 사건이 성사된 협상을 무산(無産)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부각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협상장소로 가는 과정도 「기고문」이 「유고록」에 비해 상당히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기고문」에 나와 있는 과정을 보자.

두 사람의 부관 그리고 자동차 운전수 도합 네 사람은 커다란 해망과 슬픔을 가득 품고 산상으로 달렸다. 산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로는 일본군이 본토작전에 대비하고자 제주도 한라산 산록 일대에 강제부역으로 만든 길이다. ... 연대본부를 떠나 二〇마일 지점에 이르렀다. ... 자동차는 쉴 사이 없이 이 돌담 사이로 달리고 있다. ... 돌담 위에 일본 九九식 보병총을 메고 일본 육군 철투를 쓴 젊은 사나이는 산사람이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은 광목베 잠뱅이가 군데군데 흠이 묻은 것 등으로 보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모양이다. ... 우리 一행은 역시 아무 말대답도 없이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몰았을 분이다. 이제는 제법 산중에 들어왔다. 멀리 동남간으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용자(勇姿)는 오늘의 좋은 성과를 상징이나 하는 듯 뽀얀 구름을 산중허리에서부터 슬슬 돌려 감고 있고 해발 三백 미터나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대(大隊) 중대(中隊)들의 자동차와 병사들이 성양곽을 흘트려 놓은 듯이 내려다보인다. ... 둘째 번의 보초선을 통과하였다 ... 벌써 연대본부를 떠난 지 一시간 三〇분이 되었고 거리로는 약 四십 마일을 올라왔으나 아직 어디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는 우리로서 추측하기도 곤란하다. ... 확실히 집이 보였다. 초가삼간 문자 그대로 아주 보잘 것 없는 집이었다만은 저 집이 필시 그 무슨 곡절이 있는 듯 산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저 집 속에 나와 만날 반란군의 지휘자 있는가 느낄 수가 있었다. ... 산간농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깨끗이 소제가 되어 있고 ... 보초병은 자동차와 운전수를 밖에 남겨두고 우리 3인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안도 역시 아무런 장치도 벽보(壁報)도 없는 보통 농가의 방이고 다만 이 회담을 하기 위한 몇대로 만든 책상이 하나 방 가운데 놓여 있었다. ... 이 때 시간은 정각 十二시 조금 전이었다.<sup>99)</sup>

김익렬과 부관 2명, 운전수 1명 등 모두 4명이 자동차로(어떤 종류의 차인지 쓰지 않았음-필자) 연대본부를 출발하여 일본군이 만든 산길을 따라 20마일 지점에서 무장대의 연락원을 만나고 차를 계속 몰아 한라산이 동남간으로 보이

99)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7일.

는<sup>100)</sup> 해발 300m 부근에서 다시 연락원을 만났다. 이 때 이미 부대를 떠난 지 1시간 30분이 지나고 있었으며 거리는 40마일 정도를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잠시 후 나타난 초가삼간이 협상장소였다. 경비대 주둔지에서 쌍안경으로 보면 김익렬 일행이 초가로 들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을 거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20마일과 40마일 사이의 어느 지점인 해발 300m지점에서 경비대의 자동차와 병사(兵舍-필자)들이 성양곽(성냥갑-필자)을 흘트려 놓은 듯이 내려다보였다고 쓰고 있다.

「유고록」에는 지프로 운전병과 이윤락 중위 도합 3명이 출발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들이 부대를 나와 대정면사무소를 지나 곧장 산길도로를 따라 한라산으로 향해 약 15km 지점에 이르러 도착한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있는 학교<sup>101)</sup>가 협상장소였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동북으로 한라산의 밀림지대가 지적에 있었고 동남으로 중문면 일대, 서남으로 대정면 일대와 모슬포 특히 9연대의 영내가 육안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이라고 쓰고 있다.

산길을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기고문」에는 초가삼간으로 「유고록」에는 학교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우선 「기고문」에 나오는 40마일(64km)과 한라산이 동남으로 보였다는 것은 착오로 보인다. 안덕면이나 대정읍에서 한라산은 동쪽이거나 동북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64km의 비포장 산길을 2시간 이내에 달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기고문」과 「유고록」의 공통점에 가까운 내용으로 경비대 주둔지에서 쌍안경으로 보이는 곳임을 볼 때 협상장의 위치는 대략 오늘날의 대정읍이나 안덕면의 어떤 곳일 것으로 추측된다. 「기고문」과 「유고록」에는 공통적으로 9연대 주둔지가 성양곽을 흘트려 놓은 듯이 내려다보인다고 했지만 구역국민학교 부근에서는 육안으로 모슬포를 볼 수 없는 지형임을 감안한다면 「기고문」에서 말하는 쌍안경으로 보이는 거리가 맞는 사실일 듯 하다.<sup>102)</sup> 즉 구역국민학교가 아니라 더

100) 이는 동북의 오기일 것으로 판단된다.

101) 당시 대정면과 안덕면에서 가장 높은 고지의 학교는 해발 450m정도에 있는 안덕면 상천리 문덕체에 있던 학교이며 다음이 안덕면 동광리 무등이왓에 있었던 학교이다.(박순희, 2008년 10월 필자 채록)

102) 4·3연구소, 4·3항쟁42주기특집 『4·3장정』, 1990, 66쪽.

필자가 만난 구역리 주민(박평화, 2008년 10월 4일 필자 채록)도 구역마을에서는 모슬포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구역국민학교가 있는 지역의 해발 고도도 100m를 넘지 않으며 모슬포와 구역리 사이는 모슬봉으로 가로막혀 있다.

높은 곳에 있었던 초가집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지도 1〉 미육군작전지도 부분(1944년 제작, 제주도 서부지역)<sup>103)</sup>



동행자에 대해서도 1명의 차이가 있다. 「기고문」에는 부관이 2명인데 반해 「유고록」에는 부관 1명으로 이윤락 중위만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이윤락의 증언에 따르면 박경훈 지사가 같이 탔었다고 한다.<sup>104)</sup> 「기고문」에는 부관이 2명이라

103) 검은 점 부분이 구역국민학교가 있었던 지역이다. 모슬포의 9연대 병영으로부터 직선거리는 약 7Km 정도이다.

10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132쪽.

고 되어 있을 뿐 박경훈이라는 언급은 없다. 나머지 1명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고문」의 전체적인 서술을 볼 때 박경훈이 아닌 부관일 것으로 보인다.

유지들은 협상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주는 정도로 활동 폭이 제한적이었다.<sup>105)</sup> 다만 협상의 성사를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윤락이 혼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협상장소에 대하여 「기고문」에는 초가삼간 보잘 것 없는 농가에 불과한 집이었고 협상이 열린 방도 보통 농가의 방에 협상용으로 멋대로 만든 책상이 있었을 뿐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유고록」에는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부락 국민학교, 햇볕이 잘 드는 7~8평의 다다미방에 산간에서는 보기 드문 꽤 훌륭한 가구들이 놓여 있는 아마도 교장의 내실인 듯한 방이었고 중앙에는 예쁘장한 탁자가 놓여 있었다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별의 의미가 크지는 않다. 다만 협상 추진과정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초가삼간에서 열린 협상이라면 다다미방의 훌륭한 가구들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정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협상일과 협상장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정리함으로써 특정(特定)하여 보겠다. 다음의 <표 4>에서 보듯이 협상장소에 대하여 국민학교<sup>106)</sup>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1978년에 김봉현(金奉鉉)이 지은 『濟州道血の歴史』이다. 김봉현은 앞선 자신의 저서(1963)에서는 ‘대정면 구역리’로만 서술했던 것을 이 책에서 구역리 국민학교라고 특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김익렬은 구역국민학교라고 특정하여 서술하지는 않았다. 「유고록」에서도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부락 국민학교였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유고록」이 『4·3은 말한다 2』에 실리면서 편집자가 구역국민학교로 서술한 이후 협상장소는 구역국민학교로 거의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05) “나는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십수 명의 (평화협상의 막후교섭을 해줄 민간인)협력자를 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여하한 경우에도 미군정과 군대책임자인 내가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들의 안전을 확약해 줄 것과 이를 위해서는 자기들의 명단과 협조내용을 극비에 부쳐달라고 요청(강조-필자)했다. 그들은 극비리에 막후에서만 나에게 자문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다.”(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11쪽)

106) 당시 구역국민학교는 교실건물과 관사건물, 화장실 등이 있었으며 지붕은 기와와 함석으로 되어 있다. 요즘 구역국민학교라고 알려진 사진(김웅철 편, 『強兵臺(陸軍第一訓練所)-그리고 募瑟浦』, 남제주문화원, 2006, 59쪽 사진)은 지금 현재 학교터에 남아 있는 집 사진으로 당시 학교와는 무관한 것이다.

〈표 4〉 협상일과 협상장소 기록물

기록연월 (발표)	지은이/제목	협상일	협상장소	비고
1948. 8	김익렬 국제신문기고문	4월 30일	안덕면 초가집	
1948 (1995)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문혀진 4·3의 진상』	4월 하순	-	김익렬과 협상 2회 무장대의 기록추정
1963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	대정면 구억리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	-	
1975	부만근 『광복제주30년』	4월 30일	대정면 구억리경 야산	
1975	John Merrill 시카고대 석사논문 「The Cheju-do Rebellion」	4월 말	-	두 번째는 박진경과 협상 주장
1977	국방부 전사편찬위 『한국전쟁사』 (1권)	-	대정면 구억리	
1978	김봉현 『濟州道血의歷史』	-	대정면 구억리 국민학교	구억국민학교 최초 기록
1983	장창국 『육사졸업생』	4월 28일	국민학교	「유고록」 그대로 인용
1984	김남식 『남로당연구 I』	4월 30일	대정면 구억리	
1988	양한권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4월 말	대정면 구억리	국내최초학위논문
1989~1988 (1989)	김익렬 유고록	-	산간마을 국민학교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고도
2003	『4·3진상보고서』	4월 28일	대정면 구억리	유고록 인용

「유고록」이 나오기 전의 기록을 보면, 1948년 「기고문」에는 안덕면의 초가삼간, 김봉현(1963)과 김점곤(1973)은 단지 구억리로, 부만근(1975)은 구억리경 야산으로 표현한 것을 볼 때 국민학교는 나중에 윤색(潤色)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회담장소였던 구억국민학교 자리는 건물이 헐리워져 밭으로 변해있었고 정작 구억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회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 구억국민학교에서 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의 일이에요. 왜 그 TV드라마 있었잖아요. 여명의 눈동자라 하는 거. 제주도 4·3에 대해 다룰 때 그때 구억리가 소개됐었죠.<sup>107)</sup>

이 증언은 「유고록」의 내용이 그대로 드라마의 각본으로 옮겨짐으로써 사람들의 기억을 역(逆)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김봉현(1978)의 글에서 시작된 국민학교가 방송을 통해 더욱 굳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108)</sup>

107) 김연미, 「잊지 못할 4·3의 상징적 역사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월간제주』, 1993. 5.

MBC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는 1991년 10월 7일부터 1992년 2월 6일까지 38회가 방영되었으며 이 중 27회부터 30회에 걸쳐 4·3사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특히 28회에서는 평화협상에 대한 내용이 방영되었는데 「유고록」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108) 다만 이와 다른 증언과 기록이 있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질문) 한수기 굴에서 지낼 때 1948년 4월 28일 구억리 회담에 대한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답변) 못 듣기는. 9연대하고 구억리 간이학교에서 회담을 했는데 우리 부대가 가서 보초 서러 갔었지. 그 때 9연대에서 간 사람이 우릴 보고 훈련받은 병사보다 우리가 더 씩씩하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 때 김달삼(이승진)이가 왔었어.(4·3연구소, 『4·3장정』 6, 1993, 74쪽)

필자가 위 증언채록자를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증언자도 4월 28일이라는 날짜를 알고 있었다는 느낌은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증언자는 김익렬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9연대에서 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 증언자가 보초를 섰던 협상이 김달삼과 김익렬이 만났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협상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김익렬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대장(박진경-필자)은 반도두목 김달삼하고도 만나서 무모한 항쟁을 중지·투항하라고 협상을 하였으나 (김달삼은-필자) 불응하였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解放과 建軍, 1967, 440쪽); 11연대 연대장 2명이 연속적으로 공산주의 선동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 2000, 357쪽)

### 3. 협상의 내용과 결과

협상에서 무장대사령관 김달삼과 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은 2시간여 대화를 나누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오갔던 내용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기록이 많지 않다. 따라서 협상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성사여부에 대해서는 협상당사자인 김익렬의 「기고문」과 「유고록」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연구들을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다. 다음 쪽의 <표 5>가 무장대가 주장했던 대강의 내용이다.

그런데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김익렬과 장창국의 기록과 『4·3진상보고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협상은 결렬되었다는 것이다. 협상이 성사되었는지는 협상일이 언제였는지와 함께 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협상에 대하여 과도한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sup>109)</sup> 협상이 성사되었다는 주장은 1948년 4월 28일에 협상이 성사되어 전투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5월 1일 오라리 사건 등으로 협상이 결렬되었고 그 후로 본격적인 강경진압이 전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군정과 무장대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집단이었다. 미군정은 1947년 3월경부터<sup>110)</sup> 소련과 본격적인 체제경쟁을 시작하였고 이 때 한반도의 정치세력 또한 본격적으로 이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정치지형(政治地形) 상 남한의 미군정과 북한의 소련 및 김일성세력은 하나의 국가 내의 경쟁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각 독자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문제를 미국의 영향 하에 있는 유엔으로 이관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고, 소련은 김일성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치러지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익의 거두였던 김구는 1948년 3월 공개적으로 유엔소총회의 건의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파

109)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76~177쪽;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년 봄호, 1993, 144~146쪽; 양조훈 「'제주도 메이데이'를 통해 본 미군정의 4·3도벌정책」, 1999, 1~5쪽.

110) 1947년 3월 12일 트루먼독트린을 선언하고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때 공산주의와 대결한다는 명목으로 터키와 그리스에 대하여 막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표 5〉 무장대의 주장과 협상 결과

기록연월 (발표)	지은이/제목	결과	무장대의 주요 주장	비고
1948. 8	김익렬 국제신문기고문	성사	단정반대/경찰무장해제/ 제주도고급관리전면경찰/ 관리 수뢰자 차단/ 도의 청년단체원 산간마을 출입금지	
1948 (1995)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	결렬	서술 없음	
1963	김봉현, 김민주 『제주도인민들 의 《4·3》 무장투쟁사』	결렬	단선단정반대/경찰무장해제/ 토벌대철수/서청철거/ 피검자석방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1권	결렬	무장대의 투쟁목표는 경찰, 경비대·무장대 적대시금지	
1975	부만근 『광복제주30년』	결렬	단선단정반대/경찰무장해제/ 토벌대철수/서청철수/ 구속자석방	
1975	John Merrill 시카고대 석사논문 「The Cheju-do Rebellion」	결렬	경찰의항복/경찰무장해제/ 잔학행위자처벌/우익청년단 철수/5·10선거의 무효확인	
1978	김봉현 『濟州道血의歷史』	-	단선단정반대/경찰무장해제/ 토벌대철수/서청원즉시철거/ 피검자석방	
1983	장창국 『육사졸업생』	성사	제주도민으로만 관리·경찰편성/악질경찰· 서청추방/현재경찰해체/의 거참가자안전보장	단선반대 없음
1984	김남식 『남로당연구 I』	결렬	단선단정반대/경찰무장해제/ 토벌대철수/서청철거/ 피검자석방	
1988	양한권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결렬	"	
1969~1988 (1989)	김익렬 유고록	성사	제주도민으로만 관리·경찰편성/악질경찰· 서청추방/현재경찰해체/ 의거참가자안전보장	단선반대 없음
2003	『4·3진상보고서』	성사	서술 없음	

탄 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의 불참을 선언하였고<sup>111)</sup> 같은 해 4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였다. 김규식과 그의 지지자들은 1948년 2월에 과도입법의원을 사퇴하였고 단독선거를 지지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sup>112)</sup> 그리고 김구와 같이 남북한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남로당은 단독선거의 파탄을 목표로 전국적인 활동을 강화하였다. 전국적으로 1948년 2·7투쟁을 전개하였고 제주도에서는 4·3무장봉기가 일어났던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선거부를 주요 목표로 무장봉기를 거행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5·10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미군정과는 화해할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과연 미군정이 단선거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반면에 봉기의 주요 주장이 단선거부였던 무장대가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봉기를 철회할 수 있는가.<sup>113)</sup> 이 두 가지는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김익렬은 두 번의 기록에서 모두 협상은 성사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기고문」과 「유고록」의 내용은 같지 않다. 「유고록」에서는 협상이 성사된 후 전투가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귀순과 무장해제도 처음에는 부진하였으나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5월 1일 오라리 사건과 5월 3일의 드루스 대위 사건<sup>114)</sup>으로 협상은 결렬되어 다시 전투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유고록」과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기고문」에서도 협상은 성사되었다고 하였다. 「기고문」은 협상을 성사시키고 돌아온 30일 밤에 작전회의와 최고부의 명령으로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협상은 본래부터 평화적인

111) 새한민보 1948년 3월 하순(『한국현대사자료 총서』 제7권, 돌베개, 1986, 557~558쪽)

112) 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II』, 2001, 255~256쪽.

113) 이운방은 협상 합의설에 대하여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만약에 합의가 되었다면 그것은 굴복이며 더 나아가 4·3은 항쟁이기 이전에 소수의 망동분자들의 헤프닝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회합(협상-필자)이 있는 후 모슬포에서 김달삼이 자신에게 정세를 설명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4·3부대의 진압은 불가능한 일이며 경비대는 중립적이면서도 오히려 유격대에 대하여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군정당국이 의뢰할 곳은 미점령군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미 점령군은 우리 사업에 직접 간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크나큰 국제문제로 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바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114) 이는 1948년 5월 3일 낮에 제주읍 서남쪽 야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귀순의 형식으로 산을 내려오던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자들로부터 충격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제민일보 4·3취재팀,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184~189쪽) 다만 이 내용이 장창국의 『육사출업생』에 처음 나오는 것으로 김익렬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미군정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다.(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102쪽)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장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의 전술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미군정은 협상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장대는 단선·단정거부를 최우선으로 주장하며 봉기를 한 것이었다. 따라서 김익렬의 주장대로 협상이 성사되었다면 무장대로서는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5·10단선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가 과반수 미달로 선거무효가 선언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무장대의 활동이 적어도 제주도 내에서 만큼은 실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여전히 무장대의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장대로서는 굳이 항복할 이유가 없는 시기였다.<sup>115)</sup> 이는 무장대가 협상에 임하기는 했지만 경비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단정반대 이외의 다른 주장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기고문」의 주장을 보면 단정반대 이외에도 경찰무장해제, 제주도고급관리 전면경질, 관리수뢰자(受賂者) 처단, 도의 청년단체원의 산간마을 출입금지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의 기록에 나오는 다른 주장들은 서청 철거, 피검자 석방, 토벌대 철수, 의거참가자 안전보장 등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미군정에게 제주도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는 김익렬이 “나는 이러한 모든 조건은 나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뿐이므로 전면적으로 이를 거부”<sup>116)</sup>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익렬이 주장했던 내용은 즉각적인 전투행위 중지, 무장해제, 범법자의 자수와 명단의 작성제출<sup>117)</sup>, 인민군의 간부 일체를 인질로써 구금<sup>118)</sup>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무장대의 봉기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도 없는 주장이었다. 다음은 무장대의 주장이다.

---

115) 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185쪽.

116)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11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26~327쪽.

118)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시민 동포들에게! 경애하는 부모 형제들이여! '4·3' 오늘은 당신님의 아들 딸 동생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매국 단선단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완전한 민족 해방을 위하여! 당신들의 고난과 불행을 강요하는 미제 식인종과 주구들의 학살 만행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늘 당신님들의 뼈에 사무친 원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들은 무기를 들고 쫓기하였습니다. 당신님들은 중국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우리들을 보위하고 우리와 함께 조국과 인민의 부르는 길에 쫓기하여야 하겠습니다.<sup>119)</sup>

무장대가 봉기를 하면서 산포(散布)했던 전단의 내용이다.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단선·단정의 반대였다. 5·10단독선거를 무산시킴으로써 단독정부 수립을 막고자 봉기를 한 것이므로 무장대의 투쟁 목표는 우선적으로 5·10선거의 파탄이었다. 따라서 5·10선거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단독선거·단독정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협상이 있을 수 있는가.<sup>120)</sup>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협상을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앞의 <표 5>에서 김익렬, 장창국 그리고 『4·3진상보고서』를 제외하고 모두가 결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119) 아라리연구원 엮음, 『제주민중항쟁 II』 단행본 자료집, 소나무, 1988, 85쪽.

120)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100~101쪽.

## IV. 협상과 오라리 사건

### 1. 협상과 오라리 사건의 관계

협상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무장대의 봉기 이유와 미군정의 대한정책이 부딪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121)</sup> 이럴 경우 5월 1일에 있었던 소위 오라리 사건은 협상과 큰 연관을 가지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라리 사건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되었고 강경진압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122)</sup> 과연 협상과 오라리 사건이 그렇게까지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지가 의문이다.

「유고록」에서는 협상 성사 후 전투가 줄어들었고 귀순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즈음 오라리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폭동이 재연되었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경찰이 이를 조작하게 된 이유는 협상을 계기로 사건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경우 조병옥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오라리 사건은 미군정에 의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촬영되었다. 그리고 이는 4·3사건과 관련된 현재까지 확인된 유일한 필름이다. 이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가<sup>123)</sup> 경찰·서청의 방화와 미군정이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소위 오라리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굳이 미군정이 사건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을까. 적어도 4·3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반전(反轉)의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

121) “그런데 김익렬을 수행하여 구역리회담에 참가한 바 있는 당시 9연대 정보주임 이윤락의 회고에 따르면 4·3측의 첫째 요구조건에는 단선·단정을 획책하는 미군의 철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김익렬은 「유엔 감시단과 미군을 철수하라는 문제는 우리 군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대응했다고 한다.”(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182쪽) 이미 이 말에서 협상의 결론은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22)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534쪽;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년 봄호, 1993, 144~146쪽; 함옥급, 「「제주4·3」의 초도화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50쪽;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1, 48쪽.

12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147~176쪽.

군정은 이미 이 사건이 남로당의 봉기로 시작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sup>124)</sup> 미군정으로서의 좌익이 일으킨 봉기는 어떤 형태로든 진압해야하는 것이었다. 이미 1948년 4월 3일부터 같은 해 4월 30일까지 희생자들이 <표 6>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6〉 사상자(1948. 4. 3 ~ 1948. 4. 30)<sup>125)</sup>

구분	사망				부상			행방불명		계
	경찰	비폭도	폭도	미확인	경찰	민간인	폭도	경찰	민간인	
인원	9	27	12	19	10	63	5	3	4	152

불과 한달 사이에 74명이 죽거나 행방불명되고 78명이 부상당하는 상황에서 미군정이 별도의 사건을 조작하면서 강경진압의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남로당이 봉기를 일으켰고 계속해서 군경과 우익단체원을 공격하고 피해를 주는 상황은 이미 미군정으로서의 진압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의문은 「기고문」에서 해결된다. 「기고문」에는 4월 30일 협상을 끝내고 돌아온 그날 밤에 상부로부터 강경진압 명령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내가 경비대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대원들은 내가 살아 돌아오음을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 자신도 기쁘기 한량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시작한 작전회의와 최고부의 명령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제는 반란군의 근거지를 알았으니 곧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와 김달삼과의 회견은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라고 최고부에서는 말하였다. 나는 그 의도는 전략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고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여 왔으며 모슬포에 있는 나의 가정에는 이날 밤부터 폭탄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동네 부녀자로 생각되는 여인들은

124) 4·3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 제7권, 2003, 53쪽/167~168쪽.

125) 미군정 고문관 제이콥스가 1948년 5월 4일 작성하여 미 국무성에 보낸 대외비문서(4·3연구소, 『제주4·3자료집 II』, 2001, 113~114쪽)

물동이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돌담너머로 던지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회답이 있는 얼마 후에 최고사령부 명령으로 모 지구에 전임하였던 것이다.<sup>126)</sup>

이는 이미 강경진압을 전개하고자 했던 미군정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4월 17일 경비대에 대하여 진압참여를 명령했고 4월 20일 부산주둔 제5연대의 1개 대대 병력을 증원하고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경한 진압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미군정과 최고지도부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라리 사건은 협상의 합의를 결렬시키는 특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협상의 합의가 분명하지 않기도 하지만 미군정으로서도 상황을 반전(反轉)시켜야 하는 시기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오라리 사건을 무리하게 협상과 연관 지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오라리 사건이 미군정에 의해 촬영되어 현재까지 그것이 4·3사건 당시를 보여주는 유일한 필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역시 「유고록」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결과이다. 물론 오라리 사건이 무장대의 소행으로 왜곡되어 알려지고 있었던 것처럼 상당한 기간 4·3사건의 진실이 가려져 있었음을 본다면 당시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오라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라리 사건은 4·3사건 당시의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김익렬은 「유고록」에서 협상은 성사되었고 전투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는데 협상 사흘 후인 5월 1일 오라리 사건과 5월 3일 귀순자에 대한 위장공격 사건으로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실제로 전투가 줄어들었는지를 다음에 나오는 <표 7>을 통해 보자. 이 표를 통해서 볼 때 전투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평온을 되찾았다는 것은 실제와는 달라 보인다. 「유고록」에 따를 경우 1948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전투가 소강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미24군단 정보일지, 미6사단 정보일지 그리고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전부에서 무장대나 경찰 모두 작전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26) 국제신문 1948년 8월 8일.

〈표 7〉 전투상황(1948. 4. 20 ~ 1948. 5. 3)

날짜	시간	공격 장소	무장대 규모	내용	출처
4월27일	밤	제주읍 화북	미상	마을 이장 납치	미24군단 정보일지, 미6사단 정보일지
”		애월면 하도,하귀 HAMBUK		전화선 절단, 목조다리 2개 파괴	미24군단 정보일지
”	저녁	애월면 신엄		지방관리 6명이 기습당함	미24군단 정보일지
”		대정면 동일		반동거두 1명 숙청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4월28일	3:30	애월면 신엄	14명		미24군단 정보일지, 미6사단 정보일지
”		제주읍 노형2구	20명	6시간 전투, 경관3명 부상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		대정면사무소	8명	반동직원1명 숙청, 동료직원1명 희생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		대정면 안성	미상	반동구장 중상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4월29일 ~30일	12:00~ 12:00			경찰, 6개 마을 급습, 8명 체포	미24군단 정보일지
4월30일	3:30:	조천면 함덕		대동청년단원 1명 납치	미24군단 정보일지
”	2:00	SINTENGRU (모슬포 동쪽)		선거관리위원 1명 피살	미24군단 정보일지
”	8:00	제주읍 오라 근처		여성 1명 구타당해 죽음, 1명 탈출(대청원 아내)	미24군단 정보일지
”				부인을 살해	미6사단 정보일지
”	밤	서귀포/ 모슬포		서귀포와 모슬포 사이 송전선, 전화선 절단	미24군단 정보일지
”		모슬포지서	15명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5월1일	12:30~ 15:30	제주읍 오라		남자2명, 여자4명 피살	미24군단 정보일지
”				남자2명, 여자2명 살해	미6사단 정보일지
”	2:00	PYUNG-NI		선거관리위원장 피살	미24군단 정보일지
”	오 전	제주읍 동쪽-애월면 하귀		전화선 절단	미24군단 정보일지
5월3일	17:00	애월면	100명		미24군단 정보일지
”	7:30	제주공항활주로	60명	활주로 공격	미24군단 정보일지

1948년 4월 29일과 30일 사이에 경찰은 6개의 마을을 습격했으며 무장대는 조천면 함덕리, 모슬포 동쪽, 제주읍 오라리, 서귀포, 모슬포지서 등을 공격하였다.



특히 협상이 구역리에서 열렸다면 적어도 모슬포 부근에서는 이미 협상의 결과가 전파되어 전투나 공격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야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표 7>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건들이 있어서 오라리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다음의 <표 8>은 1948년 4월 3일 봉기부터 5월 1일의 방화사건까지 오라리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표 8> 오라리 관련사건 일지

날짜	사건내용	비고
1948년 4월 11일	경찰관아버지(당시 58세) 무장대에 의해 사망	
1948년 4월 21일	이순오(당시 35세) 무장대연락병의 혐의로 죽음	
1948년 4월 23일	김태중 좌익청년활동 이유로 경찰에게 죽음	
1948년 4월 29일	마을 대청단장. 부단장 무장대에 납치	행방불명
1948년 4월 30일	여인 2명 무장대에 의해 납치되어 1명이 사망	미군 촬영
1948년 5월 1일	장례식	

오라리에서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볼 때 5월 1일에 있었던 방화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인다. <표 8>의 4월 30일에 나오는 여인 2명은 대동청년단원의 부인들인 강공부(당시 23세)와 임갑생(당시 23세)이었다. 두 여인은 동서(同墻)지간이었는 데 무장대에 의해 민오름에서 강공부는 죽임을 당하고 임갑생은 탈출하였으나 그날 밤 임갑생의 아들이 죽게 된다. 그리고 5월 1일 오전 9시 경에 강공부의 장례식이 있었고 12시경 마을의 민가(民家)가 불타기 시작했던 것이다.<sup>127)</sup>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미군에 의해 촬영되었고 이것이 소위 “제주도 메이데이” 필름이다.<sup>128)</sup>

12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176쪽.

영화는 존 메릴의 설명대로 불타는 오라리가 주무대가 되고 있으며 ‘당혹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자기 마을이 어떻게 게릴라들에게 공격받았는지 설명하는 여인’이나 ‘공산반도에게 살해됐다는 남자’가 모두 오라리 주민들인 양 편집되었다.

그러나 제민일보 4·3취재반이 당시 사건을 체험했던 오라리 주민들을 만나 영화 장면에 나오는 사진을 보여주자 많은 증언자들은 공중촬영된 마을이 오라리 연미마을의 옛 모습이 틀림없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영화에 나오는 여인이나 숨진 남자의 얼굴은 한결같이 “모르는 얼굴들”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취재팀이 만난 30여 명의 주민들이나, 심지어는 4·3 당시의 오라리 출신 경찰관마저도 “알 수 없는 얼굴들”이라고 같은 대답이었다. 의문투성이의 기록영화 ‘제주도의 메이데이’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sup>128)</sup>

4·3사건 연구 초기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다. 미국의 연구자 메릴(J. Merrill)의 설명을 토대로 필름에 나온 여인과 숨진 인물에 대하여 오라리 주민들에게 누구인지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글이다.

필름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만큼 수수께끼는 아니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름은 1948년 5월 1일 촬영 분으로 시작하여 같은 날 촬영 분으로 마무리 된다. 그리고 오라리에서 있었던 방화사건이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닌 필름이다. 또한 필름은 슬레이터<sup>130)</sup>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조금만 자세히 보면 필름의 선후(先後)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조작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에 는 우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굳이 조작할 것이라면 슬레이터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작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조작이 주목적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메이데이 필름은 2개로 구성되어 있다. ADC7114와 ADC7115 2개의 필름이다.

128) 엄밀히 말하면 메이데이필름은 오라리 사건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메이데이필름은 미군정 통신대에서 촬영한 것으로 필름에 나오는 슬레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1948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촬영된 것이다.

12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176쪽.

130) 영화의 편집을 쉽고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즉 언제 어디에서 찍은 필름인지 나중에 편집할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촬영 시작 부분에 삽입하게 되는 표시이다. 슬레이터에 따르면 “4·3취재반”이 말하는 여인과 숨진 남자가 나오는 장면은 오라리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4월 29일에 촬영된 것이다.

그런데 2개의 필름은 시간 순서가 바뀐 것이다. 즉 ADC7115가 앞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시간의 혼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31)</sup> ADC7114는 1948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촬영된 것이고 ADC7115는 1948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촬영된 것이다. 단지 두 개의 필름이 번호순서가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구성은 시간 순서대로 배치된 것으로 대체로 촬영된 내용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의 추이를 볼 때, 필자는 오라리 사건이 강경진압을 위하여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4월 3일 봉기가 남로당에 의해 일어났고 5월 1일까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에 굳이 사건을 조작하면서 강경진압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오라리 사건은 전날 우익과 관련된 부녀자들이 피해를 당했고 방화가 있었던 그 날 장례식을 마친 우익청년단체원들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의 한 형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즉 분노한 우익청년단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할 것이다.<sup>132)</sup>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던 사안이 ‘제주도 메이데이’ 필름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 2. 새로운 해석의 제기 - 「기고문」을 토대로

지금까지 ‘4·28 협상’에 대한 의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13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록」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이다. 당사자의 기록이라는 것 때문에 「유고록」은 많은 부분에서 과장되어 사실로 보기에 무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료로써 과도한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신문에 김익렬의 수기가 1948년 8월 6일부터 8일까지 게재되어 있었던 것이다.<sup>134)</sup>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글인 셈이다.

131) 편집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큰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32)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135~136쪽.

133) 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기고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71쪽 분량이다. 그 중 13쪽까지 편집의도와 무장대가 영웅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한 김익렬의 불만 등 개인적인 기고의 목적, 사건 초기 경비대의 대응 방침 등이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가 협상에 관련된 것이다. 협상과 관련해서 원고의 80%이상을 할애하고 있으며 전단 살포로부터 협상 개최까지의 과정, 협상을 앞둔 자신의 심정과 유서작성, 부대원들에 대한 작별인사, 2명의 부관과 운전수와 같이 4명 출발, 협상장소까지 가는 길에 대한 설명, 중간에 나타나는 무장대원의 모습, 협상장소, 협상장소에서 보이는 경비대 주둔지, 김달삼에 대한 설명, 협상의 내용, 복귀 그리고 강경작전의 시작까지 서술되어 있다. 전체적인 설명이 과장됨이 없고, 논리적 모순이 거의 없이 서술되고 있다.

「기고문」에 나오는 무장대원은 모두 약 67명이다. 29일 상오 12시에 경비대를 찾아온 34,5세 가량의 농부 1명, 30일 오전 김익렬 일행 4명이 협상장소로 가는 길에 첫 번째로 길을 안내하는 농부 1명과 주변에 매복한 20여명, 두 번째로 길을 안내하는 여인 3명과 주변에 매복한 40여명, 협상장소 초가의 무장대 1명<sup>135)</sup>, 김달삼과 부하 1명 그리고 보리차를 내오는 여자 1명 등이다. 4·3사건 당시 무장대의 수는 대체로 350명에서 500명 사이로 확인되고 있다.<sup>136)</sup>

전 유격대를 250명으로 정리, 이것은 4·3투쟁 시 유격대(=툽부대)와 자위대(=후속부대)와의 공동작전의 결과, 투쟁 종료 후 다 같이 상산(上山)하여 공동생활을 하기(원문-필자) 까닭에 일상생활 상의 혼란과 보급문제로 인해서 250명으로 정리 강화하여 나머지는 하산시켰음. 그러나 그 후 재차 병력 확충의 필요성을 느껴 전 원 400명 정도로 확충시켰음.<sup>137)</sup>

위와 같이 무장대원의 수와 ‘신평곶 역구왓’이나 ‘한수기 오름’ 근처가 서부지역

134) 앞장에서 이미 「기고문」의 주요 내용들은 근거로써 제시되었다. 필자는 이 「기고문」을 확인함으로써 협상에 대한 검토를 깊이 있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유고록」과 「4·3진상보고서」에서 의심 가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135) 집을 발견할 때는 산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으나 도착할 때는 99칼빈 총을 맨 폭도가 1명 서 있었다고 쓰고 있다. 김익렬은 ‘무장대’가 아니라 ‘폭도’라고 썼다.

136)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76~177쪽.

137)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1995, 20~21쪽; 4·3연구소, 『4·3장정』 6, 1993, 43쪽.

무장대의 근거지임<sup>138)</sup>을 감안할 때 67명은 충분히 동원될 수 있는 인원으로 볼 수 있다.<sup>139)</sup> 또한 무장대의 복장은 대체로 광목베적삼으로 표현되어 당시 제주도 민이 많이 입었던 옷을 과장 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유고록」에는 무장대 500~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sup>140)</sup> 이 중 200여 명이 카빈을 비롯한 소총으로 무장하였고 나머지는 비무장이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김익렬은 이미 같은 글의 앞부분에 연대의 정보 분석에 따라 무장대의 수를 200~300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sup>141)</sup> 같은 글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구나 협상은 비밀이었다. 기록을 보완하는 증언을 보면 구억마을에서 협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는 증언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증언자들 중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개 무장대와 경비대가 만났다는 정도만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다.<sup>142)</sup>

「기고문」은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설명이 가능할 만큼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고록」과 「기고문」의 기록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기고문」은 차분하고 과장이 없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기고문」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내용적 측면에서 「기고문」은 1948년 4월 27일부터 경비대가 대대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데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sup>143)</sup> 그 답은 협상일이 1948년 4월 28일이 아니었으며 경비대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은 메이데이를 앞두고 무장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다음으로 협상장소에 대해서도 구억국민학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분명하게 어디라고 밝히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평범한 집이 협상장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고문」에는 김달삼이 협상이 열리는 집을 협상 때문에 잠시 빌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학교였다면<sup>144)</sup> 굳이 빌렸다는 표현을 할 필요

138) 한경곶자왈의 신평곳이나 한수기곳에서 구억리까지는 걸어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다.

139) 매복한 무장대원의 수는 김익렬도 추정한 것이지만 일단 크게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14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20~321쪽.

141)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전예원, 1994, 301쪽.

142) 4·3연구소, 4·3항쟁42주기특집 『4·3장정』, 1990, 65쪽.

143) 『4·3진상보고서』에는 “왜 4월 28일로 예정된 평화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펼쳤는지 의문이다.”라고 쓰여 있다. (4·3위원회, 『4·3진상보고서』, 2003, 196쪽)

는 없는 것이다.

형식적 측면에서 「기고문」이 「유고록」에 비해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까운 근거는 첫째 기록의 시기에 있다. 「기고문」은 협상이 있고 나서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시기에 쓰여 졌다. 특히 김익렬 자신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시기였으며<sup>145)</sup> 유서를 작성하고 임했던 협상인 만큼 그에 대하여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건 발생 후 20여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유고록」과는 비교가 안 된다. 둘째, 기록의 측면에서 「기고문」은 전적으로 협상에 대해서만 쓴 글이라는 점에서 「유고록」이 가지는 개인회고록의 성격보다 더 전문적이다. 셋째 내용의 전개에서 거의 과장이 없으며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된 표현이 곳곳에 보이는 「유고록」에 비해 사실적으로 서술된 글이라고 보인다.

다음에 나온 인용문은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것이다. 이는 「유고록」이 가지는 특별한 한계와 관련되어 있다.

폭동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만심(慢心)하고 있다가 불의의 기습을 받고 일시에 무기와 인원의 손실을 당한 경찰은 당황한 나머지 사건의 진상마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다.<sup>146)</sup>

나(김익렬-필자)는 경찰의 최고책임자인 조병옥 씨와 특별사령관 김정호 씨가 제주도에서 동족에게 자행한 초토작전의 만행을 민족적 양심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sup>147)</sup>

144) 이 시기 구역국민학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145) 남조선 과도정부 통위부의 특명에 근거하여 확인한 협상이후 김익렬의 인사이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김익렬은 박진경의 암살 후 사령부의 조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 시기가 여수 14연대 다음의 총사령부 시절로 판단된다. 실제로 기록에는 서울신문 1948년 8월 14일자에 8월 13일 박진경 대령 암살범 재판에 증인을 참석한 것이 확인된다. 휴가는 오일군 소령도 같은 날에 받고 있다. 「기고문」은 1948년 6월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 또는 여수에서 작성된 것이다.

날짜	1948. 5. 6	1948. 6. 16	1948. 7. 15	1948. 7. 29~8. 4	1948. 8. 5
근무지	서울 총사령부	제5여단제14연대	총사령부	휴가	제1여단제13연대

14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99쪽.

147) 제민일보 4·3취재반, 앞의 책, 전예원, 1994, 299쪽.

두 개의 인용문은 경찰에 대한 것이다. 「유고록」은 일관되게 경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경비대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초토화 작전도 경찰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초토화 작전은 경찰에 의해서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경비대도 같이 수행한 작전임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록」에서는 초토화 작전의 책임과 관련하여 경찰과 경비대를 구별하여 경찰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민심은 차차 극도로 악화하여 3월 28일 애월리(涯月里) 산간부락에서 약 2백여 명의 도민이 무장하고 전투훈련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비대 측에서는 4월 2일 당시 제주도경찰청 김영배(金英培) 청장과 군경 협조하여 모종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협의를 굳게 하고 필자(김익렬-필자)는 한림(翰林)에서 숙박하고 있는 동안 그 이튿날 새벽에 제주도 일대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sup>148)</sup>

「기고문」에서는 「유고록」과 달리 경비대와 경찰이 합동작전을 추진하는 협력 관계임을 말하고 있다. 경찰청장과 협의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경비대와 경찰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의 ‘폭동이 발생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라는 「유고록」의 내용이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3월 20일경 새벽오름 합숙훈련장에 애월지서원 1명, 서북청년회 2명, 구엄 대한청년단원 6명 등 9명이 미명(未明)에 습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sup>149)</sup> 이는 경찰에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작전도 수행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고문」에 나온 것처럼 경비대와 경찰은 협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고문」을 통해 보면, 4·3사건은 당시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겼다.

평화와 독립을 찾기 위하여 통일과 단결과 그리고 아름다운 동족으로써 이 아슬아

148)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149) 문창송 편,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 보고서』, 1995, 46쪽.

슬한 위기를 헤엄쳐 나가지 아니치 못하는 까닭에 이번 제주도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동안 당국도 각종의 보도기관도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소위 “산사람”이라고 부르는 반란군의 정체며 그들을 지도하는 수령에 대하여는 하등의 보도와 발표에 접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무슨 방법으로 무력대항을 하였으며, 그 최고지휘자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이냐? 다행히 본사는 당시 국방경비대 제주도 최고지휘관으로 있다 사령부 소속으로 전임한 김익렬 중령이 말하는 반란군 지휘자 김달삼과 김중령과의 회견기를 게재함으로써 금차 사건의 편모를 소개코자 한다.<sup>150)</sup>

당시 신문들은 사건의 전개를 단편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신문과 같은 심층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알려져 무장대가 영웅처럼 만들어지고 있다고 김익렬은 판단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김익렬은 자신의 회담기를 기고하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69년 전역 이후 쓰인 회고록이 국제신문 「기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쓰여 지면서 지금과 같은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유고록」은 많은 부분 논리적 모순이 있는 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록」은 거의 대부분 사실로서 인정되어 4·3사건을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료로써 활용되었다. 그 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과도 무리한 연관을 시켰던 것이다.

또한 4·3사건은 진압했던 세력이 오랫동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억압하였기 때문에 기억들이 왜곡되어 전파되었고 남아 있는 문헌자료도 당시 신문의 단편적인 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 결과 구술자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협상과 오라리 사건의 관계도 그러한 한계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이다. 즉 사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다.

---

150) 국제신문 1948년 8월 6일.



#### IV. 맺음말

지금까지 4·3사건 초기 추진되었던 경비대와 무장대 간의 협상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지금 널리 알려진 사실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협상은 4월 28일이 아니라 4월 30일에 열렸다. 협상장소도 구억국민학교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라산 쪽 고지대에 있는 평범한 초가집이었다. 그리고 협상과 오라리 사건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협상의 추진 주체는 경비대를 중심으로 한 미군정 세력이었다. 협상은 진압군 측에서 제의했던 것이므로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귀순 촉구협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따라서 무장대가 항복하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단선·단정거부 등을 주장하며 1948년 4월 3일 봉기를 함으로써 본격화된 무장 대립은 5·10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치열한 대립을 더해 가고 있었다. 이미 많은 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정은 1948년 4월 17일 초기의 치안상황 판단을 변경하여 경비대 제9연대에게 진압명령을 내렸다. 1948년 4월 20일 경비대 제5연대의 1개 대대가 부산에서 제주도에 들어왔고 본격적인 강경진압이 전개되었다. 특히 5월 1일 메이데이를 계기로 강화될 수 있는 무장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강도 높은 진압작전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상은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에 참가하거나 관계된 세력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과 무장대는 사실상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만 김익렬 중령은 평화롭게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기고문」과 「유고록」 모두에서 그는 사건의 해결방법에서 유연한 태도를 일부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미군정에게는 효율적이지 않고 무능한 지휘자로 보였다.<sup>151)</sup> 김익렬에게는 경비대원 모집광고에서 보이는 ‘민족주의’적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군정의 강경진압 정책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익렬은 5월 6일 제9연대를 떠나 사령부로

151) Jimmie leach, 「Back in the day」 (2006. 10. The Gazette) 이 회고에 따르면 김익렬은 무능하고 (ineffective) 비효율적인(incompetent) 군인이었다.

전임 명령을 받음으로써 제주도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3개월 후 국제신문을 통해 협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혔던 것이다.

4·3사건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1988년 이후이다. 20여년의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4·3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하여 대부분은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주제인 경비대와 무장대의 협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4·3사건이 좌우익을 막론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던 사건이었고 미군정은 이미 남로당이 일으킨 봉기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 굳이 방화사건을 조작하여야만 강경진압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의문이었다.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역설적으로 협상의 당사자가 분명하지 않은 회고록을 남겼고 이것이 널리 알려졌던 것에서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료발굴과 철저한 사료비판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미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8월에 「기고문」이 국제신문에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 기고에 대하여 잡지 『신천지』가 인용함으로써 그 존재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 잡지의 글은 대부분의 4·3사건 관련 연구자료에 수록됨으로써 「기고문」을 발굴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고문」은 1948년 『신천지』 8월호에 인용된 이후 다른 자료에서는 사료로써 활용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sup>152)</sup> 그런데 오히려 이처럼 전혀 사료로써 활용되지 않은 점이 연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사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그러나 검토 결과는 이 「기고문」이 협상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한 바이다.

사료발굴이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사료비판에도 적용된다. 「유고록」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많은 부분에서 과장과 논리적 모순이 존재하는 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연구는 ‘유일한 기록’이라는 설명으로 「유고록」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결과는 오라리 사건과의 연결이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귀결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료발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을 통해 필자는 협상과 관련하여 여전히 연구되어야 할 것들이 있음

152) 더구나 국제신문이 1949년 3월에 폐간됨으로써 쉽게 접할 수 없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을 절감하고 있다. 여러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협상은 한번만 있었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구억국민학교에서도 또 다른 협상(또는 회의)이 있었을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sup>153)</sup> 구억리는 서부지역 무장대의 근거지인 ‘신평곶’과 경비대 제9연대의 병영이 있는 모슬포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지역이다. 양쪽에서 걸어서 각각 1시간 내외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다. 따라서 제9연대의 남로당계 군인이 있어서 무장대와 연락 또는 회합이 필요할 경우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충분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연성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53) “4월 3일 제주도 소요가 봉기한 이후 전 11연대장 김종령 재임 시에는 경찰의 폭도와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하여 경비대는 도민을 선무하기에 노력하여 그들의 신뢰를 받았으나 박중령 부임후로는 경찰과 협력하여 소요부대에 무조건 공격명령이 내렸으며 도민도 탄압하기 시작했으므로 도민들의 신뢰도 잃게 되었으며 경비대 내부 공기도 동요하였다. 나는(문상길 중위-필자) 김종령의 동족상잔을 피하는 해결 방침에 찬동하였으며 처음으로 김달삼과 만난 이유는 김종령과 회견시키기 위하여서였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박대령 부임 후였는데(강조-필자)** 그 때 김달삼은 30만 도민을 위하여 박대령을 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을 뿐 아무런 지령도 받지 않았고 김과 두 번이나 만난 것은 ….” (서울신문 1948년 8월 13일 「박진경대령 암살사건 제4회 공판」)

또 다른 증언을 통해 볼 때, 구억국민학교에서 협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장소는 날짜에 비해 혼동이 적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30일은 아니더라도 다른 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연구논저

#### 1) 학위논문

- 강성현, 「제주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2002.
- 김광우, 「언론의 제주4·3보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4
- 김동만,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 연구-영상자료 <제주도 메이데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논문, 2004.
-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5.
- 문순보,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미군정의 대제주도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1.
- 박명립, 「제주도4·3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1988.
- 양정심, 「제주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1995.
- \_\_\_\_\_, 「제주4·3항쟁 연구」,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005.
- 양한권, 「제주도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1988.
- 장윤식, 「제주4·3사건 초기 '무장대'의 조직과 활동」,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2005.
- 정민혜, 「남로당의 적화전략에 관한 연구-4·3사건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6.
- 함옥금, 「제주4·3의 초도화 작전과 대량학살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허영선, 「제주4·3시기 아동학살 연구」,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석사논문, 2006.
- 허호준, 「제주4·3의 전개과정과 미군정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5·10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논문, 2002.

#### 2) 일반논문

- 강정구,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조선의 분단:4·3항쟁을 중심으로」 『1998 제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논문집』, 2000.
- 고창훈,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89.

- 김동만, 「제주지방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역사비평』 제12호, 1991.
-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성대사림』 제10집, 1994.
- 김무용, 「제주4·3토벌작전의 민간인 희생화 전략과 대량학살」 『4·3 60주년 기념 국제학술 회의자료집』, 2008.
- 김영명, 「남한 단정수립의 현실주의적 분석」 『아시아문화』 제5호, 1989.
- 김종민, 「4·3이후 제주50년」 『제주4·3연구』, 1999.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년 봄호, 1993.
- \_\_\_\_\_, 「4·3항쟁의 생존자 이운방울」 『사회평론』, 1992.
- \_\_\_\_\_,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의 정치상황에 나타난 제주도지사 유해진」 『제주도 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 \_\_\_\_\_, 「넬슨 특별감찰보고서:제주도의 정치상황 해제」 『제주도연구』 제17집, 제주학회, 2000.
- 박찬식, 「1947년 제주3·1사건 연구」 『한국사연구』 통권132권, 2006.
- 박태균, 「1945~1946년 미군정의 정치세력 재편계획과 남한 정치구도의 변화」 『한국사연구』, 1991.
- 신복룡, 「제주4·3사건」 『동아시아연구논총』 제12권,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2002.
- 양정심,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제주4·3항쟁에 대한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여름호 제37집, 2006.
- 양조훈, 「제주4·3의 역사적 조명」 『제주도 연구』 15, 제주학회, 1988.
- 윤경섭, 「1947~1948년 북한의 정부수립 문제와 남북연석회의」 『성대사림』 제21권, 2004.
-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이재승, 「인권과 과거청산의 측면에서 본 『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제주4·3운동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기자협회·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공동심포지엄자료집, 2003.
- 장영민,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2005.
- 정석균, 「제주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제47호, 2002.
- 정해구, 「제주4·3항쟁과 미군정정책」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조이현, 「1948~1949년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군사고문단(KMAG)의 활동」 『한국사론』 제35집, 2002.
- 차상철, 「존 하지(John Hodge)와 미군정 3년」 『동방학지』, 1995.
- 차재영,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제5호, 1994년 가을, 1994.

- 한용원, 「5·10총선거를 둘러싼 좌우익 간의 투쟁」 『한국사시민강좌』 제38집, 2006.
- 허 은,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2000.
- 허 은, 「미 점령군 통치하 ‘문명과 야만’의 교차」 『한국근현대사연구』, 가을호 제42집, 2007.
- 허호준, 「언론을 통해 본 제주4·3 진상규명운동의 역사와 4·3재평가」 『제주4·3사건과 한국언론』, 제주도기자협회 제25회 기자포럼, 2003.
- 허상수, 「제주4·3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동향과전망』 제61호, 2004.

## 2. 단행본

- 권귀옥, 『기억의 장치』, 문학과 지성사, 2006.
- 김남식, 『남로당 연구』 I · II · III, 돌베개, 1984 · 1988.
- 김봉현, 김민주 공저, 『제주도인민들의 《4·3》 무장투쟁사』, 문우사, 1963.
- 김점곤, 『韓國戰爭과 勞動黨 戰略』, 박영사, 1973.
- 노민영, 『잠들지 않는 남도-제주도 4·3항쟁의 기록』, 온누리, 1988.
- 박용후, 『최남의 항도 모슬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9
- 박찬식, 『4·3과 제주역사』, 각, 2008.
- 부만근 편, 『광복제주30년』, 1975.
- 송건호, 박현채 외, 『해방40년의 재인식』 I, 돌베개, 1985.
- 아라리연구원 편, 『제주민중항쟁』 I · II · III, 소나무, 1988 · 1989.
- 안 진, 『미군정기 억압기구 연구』, 새길신서, 1996.
- 역사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제주4·3연구소, 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 양정심, 『제주4·3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선인, 2008.
- 이운방, 『미군점령기의 제주도인민들의 반제투쟁』, 1993.
- 정용욱, 『미군정 자료 연구』, 선인, 2003.
- 조남현, 『제주4·3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1993.

### 3. 자료

- 건국청년운동협의회,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1989.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3사건 토벌작전사』, 대한상사, 2002.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對非正規戰史』, 1988.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사』 제1권 - 해방과 건군, 1967.
- 국사편찬위원회, 『북한관계사료집VI』, 1945년~1949년.
-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 자료 총서 7』(1945~1948), 돌베개, 1986.
- 김시중, 「남로당 지방 조직은 어떻게 와해되었다」 『역사비평』, 1989 봄.
- 대검찰청, 『左翼事件實錄』 제1권, 1965.
- 문창송 편, 『한라산은 알고 있다. 묻혀진 4·3의 진상-소위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 중심으로』, 1995.
- 박서동 채록·정리,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월간관광제주, 1990.
- 백선엽,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3.
-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 \_\_\_\_\_,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 제주도, 『제주도지』 제1권, 1993.
- 제주도지방의정연구소 편, 『道伯列傳 1』, 세림원색인쇄사, 2006.
- 제주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II, 도서출판 한울, 1989.
- \_\_\_\_\_, 4·3항쟁 42주기특집 『4·3장정』, 1990.
- \_\_\_\_\_,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 \_\_\_\_\_, 『4·3장정』, 1~6, 1990~1993.
- \_\_\_\_\_, 『제주4·3 자료집-미군정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 \_\_\_\_\_, 『제주4·3 자료집 II- 미국무성 제주도관계문서』, 각, 2001.
-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1~3 신문편』, 2002.
-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4 정부문서편』, 2002.
-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5 군경자료편』, 2002.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자료집6 관보편』, 2002.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7 미국자료편』, 2003.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8 미국자료편』, 2003.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9 미국자료편』, 2003.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10 미국자료편』, 2003.  
 \_\_\_\_\_, 『제주4·3사건 자료집11 미국자료편』, 2003.  
 \_\_\_\_\_,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제주도, 『제주실록』, 1997.

조남수, 『四·三眞相』, 월간 관광제주, 1988.

Hq. USAFIX. G-2 Periodic Report(『주한미군 정보일지』,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  
 구소 영인, 1988)

Hq. USAFIX. G-2 Weekly summary(『주한미군 주간정보요약』, 한림대 아시  
 아문화연구소 영인, 1988)

#### 4. 구술자 명단

문창송(1925년생, 4·3사건 당시 화북지서장)

박근호(1930년생, 4·3사건 당시부터 대정읍 구역리 거주)

박순희(여, 1937년생, 4·3사건 당시 안덕면 상천리 거주)

박평화(여, 1934년생, 4·3사건 당시 대정읍 구역리 거주)

#### 5. 신문자료

『경향신문』, 『국제신문』, 『노력인민』, 『독립신보』, 『서울신문』, 『제민일보』,  
 『제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 〈부록〉 김익렬의 『국제신문』 기고문

게제일 : 1948년 8월 6일/7일/8일

(※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대부분 현행에 맞추었고, 한자는 그대로 수록함)

1948년 8월 6일

同族의 피로 물들인 濟州參戰記

前 弟九聯隊長 金益烈 中領 記

남해의 고도 …… 제주도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쓰라린 기억을 남겨주었다. 어쩌하여 우리는 싸워야 하였으며 또 싸우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 것이냐? 성봉 한라산(漢拏山)만이 이 동족간의 처참한 “피의 기록”을 아는 듯 말없이 서 있고 파도치는 백사장에는 무심한 갈매기 떼만이 동방(東方) 약소민족(弱少民族)의 비극을 아는 듯 처량히 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고 싶지 않은 싸움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다. 이 몸소 체험한 쓰라린 교훈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평화와 독립을 찾기 위하여 통일과 단결과 그리고 아름다운 동족애로써 이 아슬아슬한 위기를 헤엄쳐 나가지 아니치 못하는 까닭에 이번 제주도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명하지 않을 수 없다. 수평선 저쪽에 본토(本土)를 바라보며 전통과 근면(勤勉) 속에서 살아온 평화의 섬나라 … 제주도에도 해방이 가져온 모진 바람이 불었으니 그것이 곧 “산사람”과 군경(軍警)의 무력충돌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당국도 각종의 보도기관도 이 사건을 상세히 보도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소위 “산사람”이라고 부르는 반란군(叛亂軍)의 정체며 그들을 지도하는 수령(首領)에 대하여는 하등의 보도와 발표에 접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조직되었으며, 무슨 방법으로 무력대항을 하였으며 그 최고지휘자는 과연 어떤 인물일 것이냐? 다행히 본사(本社)는 당시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 제주도 최고지휘관(濟州道最高指揮官)으로 있다 사령부(司令部) 소속으로 전임한 김익렬(金益烈) 중령(中領)이 말하는 반란군 지휘자 김달삼(金達三)과 김중령과의 회견기를 게재함으로써 금차 사건의 편모를 소개코자 한다. 다음은 김익렬 중령의 수기(手記)의 일부이다.

무엇 때문에 流血?

(上) 낮에는 農夫 밤에는 山사람部隊

當日の 回憶

지난 四월三일 새벽三시를 기하여 제주도 十一개 경찰지서와 관공서(官公署),

우익정계요인(右翼政界要人)의 암살과 방화 등을 감행한 좌익계열의 폭동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채 동족상쟁의 피어린 참상만이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을 따름이요 아직까지도 반란군진두(叛亂軍陣頭)에서 총지휘를 하는 소위 인민군총사령(人民軍總司令)의 정체(正體)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필자와 필자의 부관(副官) 두 사람 이외에는 누구 하나 그 정체를 확실히 알지 못하며 전투지휘가 상당히 능하느니 뭐니 하여 사실 아닌 사실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아디프로』(선동·선전-필자)가 횡행함을 볼 제 필자는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는 바이며 그릇된 선전을 시정하려는 의미에서 직접 인민군사령관이라 칭하는 김달삼(金達三)(二三)과의 二시간여의 회담기를 발표하여 사회 여러분들의 정당한 판단에 맡기려는 바이다.

### 發端은 警察에서 山사람이 되기까지

사건의 발단은 소위 四·八二과업사건(1947년의 전국적인 2·7총과업 또는 제주도의 관민총과업인 3·10총과업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필자주)과三一기념행사 관계로 제주도내에서 약 二천五백 명의 청년이 경찰에 구금(拘禁)되었고, 이 구금으로 3명의 고문치사(拷問致死)자가 생기고 三월 十五일 치사자 이(李) 모라는 청년의 시체(屍體)를 투강(投江) 하려다가 그 가족들에게 발견된 것이 극도로 민심에 큰 충격을 준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민심은 차차 극도로 악화하여 三월 二십八일 애월리(涯月里) 산간부락에서 약 二백여 명의 도민이 무장하고 전투훈련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비대 측에서는 四월 二일 당시 제주도경찰청 김영배(金英培)청장과 군경 협조하여 모종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협의를 굳게 하고 필자는 한림(翰林)에서 숙박하고 있는 동안 그 이튿날 새벽에 제주도 一대에 이 사건이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경비대로서는 상부의 명령이 없으므로 아무런 행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 만반의 전투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낮에는 농부(農夫)고 밤에는 반란군에 가담하는 일이 많은 소위 『산사람』의 정체를 분별하기 어려운 도외(島外)에서 온 경찰대(警察隊)의 무차별 사살은 상호간 너무나 엄청난 살생이 생겼을 뿐더러 무력(武力)으로써는 도저히 동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은 산사람부대)



### 事態는 去益混亂 雙方會合提議

관계에서는 제주도 유지와 관공서원이 주동이 되어 시국대책위원회(時局對策委員會)를 조직하고 민족청년단(民族靑年團)이 주동이 되어 시국수습특사대(時局收

拾特使隊)를 조직하고 반란군 측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동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이 좋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경비대에서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한 것은四月 二십일 증원부대(增援部隊)가 제주도 오고서부터이다.

그러나 경비대의 근본방침은 사살(射殺)보다는 선무에 주력을 두었다. 그러함으로 경비대가 좌익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한 가지 조건이기도 하였다. 동족상쟁하는 싸움마당에서 다 같은 민족끼리 더구나 단일민족인 우리 대한국민으로서는 차마 총부리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속일 수 없는 민족적 감정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四月 二二일 상오 十二시 『민족사상을 고취하고 동족상쟁의 비극을 피하며 평화적 해결을 하기 위하여 四月 二십四일 『너희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책임자와 직접 면담하되 신변은 절대 보장할 것이며 이러한 평화적 용의에 응하지 않으면 산상으로 올라가는 보급선을 중단하며 최신식 기계화 부대를 동원할 것이다』(꺾쇠 표지 원문대로임-필자) … 라는 선포문(宣佈文)을 비행기로 써 산포하였다.

#### 傳單을 交換 身分保障을 念慮

四月 二十四일 상오 六시에 『평화회담에는 응할 용의가 있으나 신분보장 한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작년 서울에서도 신분보장 운운하고 체포한 사실이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뼈라로써 회답이 왔다. 四月 二十五일 『절대 신변 보장한다』는 고문(告文)을 또 뿌렸다. 四月 二十六일 또 뼈라가 전달되었다. 『경비대의 신사성(紳士性)을 믿는다. 二十九일 十二시 경에 회견하되 장소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회답이 왔다. 이 뼈라를 받은 경비대에서는 즉시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담 진행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으나 5·1 메-데를 앞둔 四月 말이니만치 방금까지의 전투행동을 중지하고 二十九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반란군 측의 세력을 만회(挽回)시키고 5·1 메-데의 모종행사에 큰 힘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하여 二十九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의를 보게 되어 二七, 二八, 二九 三일간은 맹렬한 전투를 개시하였는데 이 전투는 제주도 소탕전 중 제일 격렬한 전투였고 이 전투로 반란군의 보급선의 일부를 단절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반란군은 큰 타격을 입었고 이러한 전세(戰勢)로 十여일 내외에는 완전히 반란군을 선무할 수 있을 만큼 되었던 것이다. 二十九일 상오 十二시에 정보부(情報部)에는 광목잠뱅이에 밀짚모자를 쓴 三十四, 五세의 중년 농부가 반란군의 연락으로 경비대를 찾아왔다. 얼굴빛은 비록 검다고 하나 넓은 이마와 광채 나는 눈은 심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무장한 경비대원의 보조선을 유유히 확보하는 모양은 비록 반란군이기는 하나 남아(男兒)의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있음을 칭찬할 만 하였다.

#### 單騎로 處窟에 生死難測의 行程

그는 간단한 인사가 있는 후 三十일 상오 十二시에 안덕면(安德面) 산간부락에

서 회견할 것을 제기하고 공격이 심하였음을 말하는 한편 무조건하고 항복한다는 말까지 전하고는 회견하는 데는 쌍방 모두 3인 이하로 하되 경비대 측에서는 총지휘관인 연대장과 그 밖에 두 사람으로 하고 무장은 서로 사양하자고 말하였다. 나는 이러한 조건을 무조건하고 수락하였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간에 만나고야 평화적인 해결이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연락원이 돌아간 후 경비대에서는 즉시 참모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정도의 요구조건(要求條件)에 대한 우리들의 응수조건(應酬條件)을 토의하고 그날 밤 나는 나의 집에 나가서 잤다. 아니 잔다는 것보다는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무차별하고 사살하는 반란군 측의 진중에 들어가야만 할 나의 신변을 생각할 제 이 마지막 길을 가는 사형수의 가슴 쓰린 마음을 생각하여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군인이라는 적지 않은 자부심은 이러한 큰 문제를 앞에 놓고 나에게 큰 편달의 힘을 주는 것이다. 만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일이 생긴다면은 하고 나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정리하고 밤이 늦게 유서를 두 통 써놓았다. 한 통은 가족에게 주는, 한 통은 제갈량(諸葛亮)이 추풍오장원(秋風五丈原)에서 강유(姜維)에게 주던 것과 같은 후군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아내가 병영에 들어오는 것까지 거부하였다. 비밀군무관계라고... 일이 끝난 다음 아무런 근심 없이 자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만져보기도 하였다. 이것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 이튿날 아침 나의 가족에게는 서울까지 군무로 출장 간다고 말하여 놓고 경비대에 돌아왔다. 동행할 두 장교를 제외하고 모든 장정을 모아 작별인사를 하였다. 그 중에는 나의 가는 길이 슬픔의 길이라는 듯 눈물을 흘리는 장교도 몇 사람 있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약한 모양을 보여줄 수는 없었다. 평소 같은 목소리로 작별인사를 하고 나서 두 사람의 부관 그리고 자동차 운전수 도합 네 사람은 커다란 해망과 슬픔을 가득 품고 산상으로 달렸다.

1948년 8월 7일

\*動亂의 濟州參戰記 - 前 第九聯隊長 金益烈中領 記

深山到處에 警戒線

(中) 꽃그늘에 덮인 司令部는 蕭條

好奇와 恐怖 羊腸九曲을 돌아서

산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는 일본군(日本軍)이 본토작전에 대비하고자 제주도 한라산 산록 일대에 강제부역으로 만든 길이다. 이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병호(散兵壕), 토굴(土窟)이 이곳저곳에 있다. 반란군들은 이것을 근거지로 모든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은 연대본부를 떠나 20마일 지점에 이르렀다. 여기는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으로 도

로 좌우편엔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돌덩이가 제멋대로 쌓여있고 그 사이에는 풀덤불 가지덤불이 엉키어 있었다. 어제 연락 왔던 농부의 말과 같이 적당한 장소에서 안내를 하겠다는 산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도무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곳이었다. 자동차는 쉴 사이 없이 이 돌담(石牆) 사이를 달리고 있다.

길이 돌담을 따르는지 돌담이 길을 따르는지 돌담은 줄창 길옆에 좁은 성(城)을 이루고 있고 우리 一행의 마음도 이 길 모양 한결같이 호기심과 공포감으로 주마등같이 설레고 있었다.

“정지!” 어디선지 무게 있는 호령소리가 들렸다. 긴장했던 참에 우리 一행은 적지 않게 놀래었다. 자동차 운전수는 무의식중에 차를 멈추었다.

### 숲 속의 伏兵 의심 품는 산사람

바라다 보이는 돌담 위에 일본 九九식 보병총을 메고 일본육군 철투를 쓴 젊은 사나이는 산사람이라는 것이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은 광목베잠뱅이가 군데군데 흩어 묻은 것 등으로 보아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 一행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하는 양을 바라다 볼 뿐이었다. 사실 그들의 한 두 사람을 체포하거나 총격하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렇게 할 무기도 우리 一행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 하였었다. 그 농부군인은 잠시 우리의 행장과 태도를 물끄러미 바라다보다가 돌담에서 뛰어 내렸다. 『연대장님 수고하십시오』 확실히 제주도말은 아니



=산사람 연락원과 문답하는 基地司令部=

었다. 우리 一행은 아무 말도 아니하였다. 다만 그 농사꾼의 태도와 주위를 유심히 바라다 보았을 뿐. 사실 그 주위 돌담 사이에는 약 二십여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반란군들이 복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九九식, 칼빈, M1 등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다. 『이 길로 좀 더 가다가 왼편으로 올라가시

오』 이것은 그 폭도가 우리 행장을 다 보고난 뒤에 길을 안내하는 말이다. 우리 一행은 역시 아무 말대답도 없이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자동차를 몰았을 뿐이다. 이제는 제법 산중에 들어왔다. 멀리 동남간으로 바라다 보이는 한라산의 용자(勇姿)는 오늘의 좋은 성과를 상징이나 하는 듯 뽐얀 구름을 산중허리에서부터 슬슬 돌려 감고 있고 해발 三백 미터들이나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대(大隊) 중대(中隊)들의 자동차와 병사들이 성양곽(성냥갑-필자)을 흘트려 놓은 듯이 내려다보인다. 이 순간 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 到處에 步哨 지게 진 女人部隊

그것은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는 우리 진지와 행동을 알고도 좋은 전과(戰果)를 갖지 못하는 반란군 측의 군사지휘도 가히 짐작할 것이며 그들 산사람들에게 중화기(重火器 野砲 重機關銃) 등이 없다는 것도 다행하기도 하였다. 엔진소리도 요란히 달리는 자동차의 면전에는 지게를 진(이 地方에서는 女子도 지게를 진다) 수 삼인의 여인들이 있음을 보았다. 며칠 전 전투에도 지금 저 여인들 모양으로 산상에 식량을 운반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도 필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가히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정차(停車)!” 이 여인들도 역시 보초(步哨)의 한 사람들이었다. 역시 그 좌우 돌담과 수풀 사이에는 약 四십 명으로 추정되는 복병이 있었다. 그 중의 한 여인은 아까의 농부 모양으로 우리들의 행장에 상당한 주시를 하는 모양이다. 한참 만에 우리는 이 둘째 번의 보초선을 통과하였다. 『왼편으로 꼬부라져 오른편으로 돌고 좀 더 가다가 또 왼편으로 돌으시오』 이것이 그 여인들이 일러주는 길안내였다. 우리는 역시 한마디 말도 없이 일러주는 길만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확실히 길을 일러주고는 즉시로 근거지로 연락을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일행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벌써 연대본부를 떠난 지 一시간 三〇분이 되었고 거리로는 약 四십 마일을 올라왔으나 아직 어디에서 만나게 될 것인지는 우리로서 추측하기도 곤란하다.

### 草幕司令部 처음 對面에 一驚

처음 출발할 즈음에는 마음이 산란도 하였지만은 막상 이러한 지점에 와보니 그리 겁나거나 초조로울 나위도 아무 것도 없이 무슨 반드시 오고야말 필연 같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기분과 이 회담이 원만하고 확실히 성공을 보게 된다면? 하는 기대와 내가 요구할 몇 가지 조건, 들어줄 조건 등을 몇 번씩이고 외워보곤 하였다.

### 여인지계꾼部隊

하염없이 달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그도 그럴 것 나의 입장과는 좀 다르기도 하니까 무리는 아니겠지만은…….



『집이 보이유!』 운전수는 놀란 어조로 고함을 쳤다. 확실히 집이 보였다. 초가삼간 문자 그대로 아주 보잘 것 없는 집이었다만은 저 집이 필시 그 무슨 곡질이 있는 듯 산사람들은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저 집 속에 나와 만날 반란군의 지휘자 있는가 느낄 수가 있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집도 확실히 엿보이고 그 집 앞에는 아까의 농부군인 모양 철모에 九九, 칼빈 보병총을 맨

한 사람의 폭도가 서 있었다. 우리의 차는 그 폭도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 폭도 병도 역시 우리의 행장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다. 산간농가로서는 보기 드물게 깨끗이 소제가 되어 있고 들에는 백일홍(百日紅), 봉선화 등 여름을 자랑하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비록 조그마하지만 돌을 이리저리 치우고 몇 가지의 야채도 심어놓았고 내가 생각하던 것과 같이 무슨 지저분한 구호(口號)나 빨라 등이 하나도 눈에 띄지도 않을뿐더러 붙였던 자리조차 발견할 수가 없다. 물론 이렇듯 깊은 산 속에까지 경찰이나 청년단체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 바에 의하면 확실히 한 농가에 불과하였다.

화초를 가꾸어 놓은 것과 뜰 소제가 깨끗한 것 등은 이 집에 어린아이나 젊은 여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

보초병은 자동차와 운전수를 밖에 남겨두고 우리 삼인을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안도 역시 아무런 장치도 벽보(壁報)도 없는 보통 농가의 방이고 다만 이 회담을 하기 위한 멋대로 만든 책상이 하나 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면서 젊은 사나이가 부하인 듯한 또 하나의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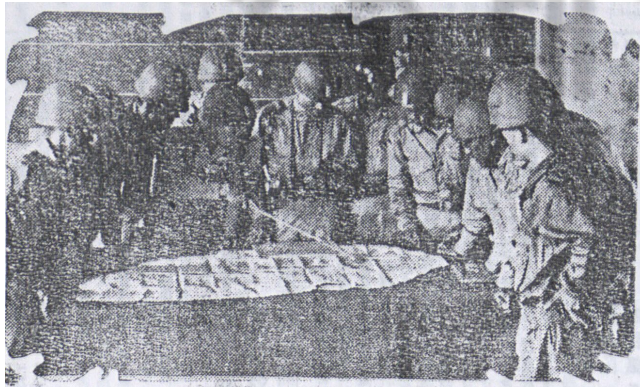
“동무 오시느라 수고했소” 앗! 나는 그 순간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너무나 의외였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반란군의 지휘자와는 너무도 상반대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이 때 시간은 정각 十二시 조금 전이었다.

1948년 8월 8일

\*動亂의 濟州參戰記-當時의 司令官 前 第九聯隊長 金益烈 中領 記  
彼我의 一張一弛  
平和手段의 解決策 드디어 水泡

꽃 같은 美丈夫 司令大名은 金達三

반란군사령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봉두난발(蓬頭亂髮)하고 그 사람의 인상(人相)도 좀 험하리라 생각될 뿐 아니라 음성(音聲)까지라도 무시무시하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본 소위 인민군사령이라는 사람은 정말 놀랄 사람이었다.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인기배우와도 같이 맑고 넓은 이마와 검은



눈썹 아래 별 같이 반짝이는 두 눈, 키는 좀 큰 편이나 몸집은 그리 건강치 못하다기보다는 가냘픈 축이었다. 산에서 진두지휘를 하였을 양이면 피부 빛이라도 검붉을 것인데 살빛은 모란꽃 같이 뽕양고 새로 만든 듯한 소위 마카오 곤색 내리닫이 무늬 있는

양복과 복숭아 같은 빛깔의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도 서울서 유행되는 마카오 제품이였다. 구두는 미국장교들이 신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양말도 역시 외국 품이였다. 아무튼 어느 모로 보든지 간에 반란군 지휘자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요 몸차림이였다. 나는 얼마 후에 비로소 입을 열어 우리는 조선의 예법에 따라 예의로써 시작하고 예의로써 끝마치기를 제의하였다. 그도 역시 동감이라는 듯이 빙그레 웃었던 것이다. 목소리, 웃는 모습 좀 보기 드문 미남자(美男子)였다. 그는 자기의 성명을 김달삼(金達三)이라고 말하였다.

### 超모던의 차림 身分은 묻지 말라

나도 나의 이름을 일러주고 나이는 몇 살이나 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서로의 신분이나 과거, 미래, 현재에 언급하지 말자고 하므로 나도 그리 알아들 필요도 없고 구태여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는二三에서 二五사이의 청년이고 말솜씨는 서울지방 말이며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같이 생각되었으며 특히 그는 침착한 태도를 취하였다. 나는 자주 열려 있는 문으로 실외(室外)를 보았다. 이 집 앞에는 역시 돌담이 쌓여있는데 그 돌담 틈으로 총구멍이 웅긋중긋 박혀있는 것을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김달삼의 태도를 엿보았다. 그는 확실히 당황하였다. 얼른 이 눈치를 췌 김달삼의 부하는 방문을 닫았다. 나는 마침 가지고 있던 가족사진을 보이며 당신도 가족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나의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고 꺾이나 처량한 얼굴을 지었다. 그 순간 김달삼은 무슨 결심이 있는 듯이 회의진행을 재촉하였다. 『여기가 바로 당신의 숙소요!』 하고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해보았다. 『아니오. 이 회의를 위하여 좀 빌렸을 뿐 이지요……』 문이 열리며 나이가 한 스무 살 쯤 되는 여자가 보리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도 이해하기 곤란한 것이 미남자 김달삼이와 비교하여 어떠한 의미로서는 좋은 동무라고 볼 수 있듯이 상당한 미인이었다.

### 麥茶로 接待 수수께끼의 居處

그 여자는 머리를 과마하였고 값진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김달삼을 가르켜 이 친구는 남자를 선동하고 저 여자는 부녀를 선동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 여자는 내가 그리 자세히 볼 사이도 없이 나가버렸다. 김달삼은 차를 권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이 차는 먹고 배 앓는 것이나 아니냐고 물어보았다. 그도 따라 웃으면서 글썽 적당히 생각하여 주시오 하고 자기가 먼저 찻종을 들었다.

내가 미리부터 생각하고 있던 바와도 달리 김달삼이가 인간적으로 그리 악인 같은 인상(印象)이 없고 기치창검(旗幟槍劍)이 삼대같이 들어서 있는 곳이나 아닌가 하는 예측도 아주 보이지도 않는 산중이거니 한 것이 경비대 주둔지구에서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 등이 나의 마음의 안도감을 준다기보다는 믿는 마음을 가지게 하였던 것이다.



나는 또 한 번 농담을 하였다. 지금 그 여자는 누구요? 이 미지의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싶었다. 그는 다만 이 집 딸인 모양이라고 말끝을 흐려버리고 말았다.

### 담배는 “럭키” 會議開始를 催促

그는 나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그 담배는 제주도내에서는 그리 흔하지 않은 『럭키스트라이크』이었고 장난삼아 만지작만지작 하는 『라이어』는 『오-스토리아』제품이었다. 그러한 미국 물품은 어떻게 손에 넣었는가? 하고 웃음의 말로 던지었다. 이 모든 것은 미군이 보급하여 주는 것이지요! 하고 역시 농담을 하였다. 더 싸움을 계속할 수가 있소? 하고 나는 뜻밖의 이야기를 건네자 김달삼도 긴장한 얼굴로 『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왜 행복하는 것이요. 행복이라기보다는 이 농번기의 저 많은 농민들이 불쌍한 것이요 하고 그는 자기 주위에 많은 농민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나는 호주머니에서 한 폭의 제주도 지도를 꺼내어놓고 안덕(安德)서 한림(翰林) 두 면간을 연필로 짝 그으면서 이 지구가 제일 중대하지요? 하고 그의 태도를 엿보았다. 이 지구는 반란군 측 본부와 그 외 분대간의 연락과 식량의 보급선이었던 것이다. 그는 차마 소리는 내지 못하여도 상당한 놀란 표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가 생명선이기도 하다.

회의를 시작합시다 하고 그는 다시 한번 재촉하였다. 나도 이에 응하여 이 회의의 진행은 경비대측이 맡아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그들은 별로 반대하는 말도 없이 회의는 곧 시작하기로 되었다. 나도 물론 그러하겠지만은 회의가 선언되면서부터 김달삼은 몹시도 긴장한 것이었다.



회의의 진행은 경비대측이 맡아보겠다고 선언하였으나 그들은 별로 반대하는 말도 없이 회의는 곧 시작하기로 되었다. 나도 물론 그러하겠지만은 회의가 선언되면서부터 김달삼은 몹시도 긴장한 것이었다.

### 劈頭に 一喝 責任所在를 追窮

나는 말하기를 왜 우리는 동족끼리 싸워야 되며 그것도 그칠 줄 모르는 장기대립(長期對立)이 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순수한 단일민족이 아니냐고……. 더구나 이번 이 반란으로써 귀중한 우리국민의 생명이 수없이 쓰러진 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보다도 통절히 비애를 느끼는 바이므로 너희들도 진정한 민족적 감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반란을 절대 금지하여 줄 것을 맹서하라고 자못 준열한 선언을 하였다. 김달삼도 말하기를 금번의 전폭적인 행복을 생각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 이상 전투지속이 불가능하여서가 아니라 저 수많은 인민들이 불쌍하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희생자를 정말 견딜

수 없이 괴로웠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장은 다시 이러한 인민봉기(人民蜂起)가 없기를 말하였으나 “현 남조선의 미군정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딱 잘라서 말소리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하였다. 나는 군인이니만치 정치적인 모든 것은 알지도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번 너희들의 반란이 결코 남조선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도 그 어떠한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투적인 구호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는 아무 말도 없었다. 우리는 다시 긴장한 태도로 돌아가 나는 경비대 최고지휘관으로써 다음의 세 가지를 제의하였다.

- 一. 完全한 武裝을 解除할 것
  - 二. 殺人 防火 強姦犯人和 그 指導者의 全面的 自首
  - 三. 所謂 人民軍의 幹部 一切를 人質로써 구금한다
  - 四. 但 以上 三條件은 條約日로부터 七日間으로 한다
- 대략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었다.

#### 正當한 抗爭 犯罪者는 아니라고

김달삼은 얼굴을 붉히며 一, 二 조건은 다 복종할 수가 있으나 三조건만은 복종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범인(犯人) 취급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점으로 보아서나 범죄로써의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이것이 범죄로써 구성된다면은 경찰과 사설단체의 살인 방화 강간 약탈은 어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경찰과 사설 청년들과 똑같은 의미에서 이번 인민봉기를 해석하기가 싫다. 사실 금번 사건의 책임은 경찰과 사설청년단체들에게 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인민대중의 고혈(膏血)을 기부(寄附)로써 강요하거나 자기들을 환영만 잘못 하여도 좌익이니 빨갱이니 하여 구금 혹은 모함 ○○하여 왔으니 이것을 정당방위하기 위하여 제주도인민은 봉기한 것인데 이것을 범인으로써 취급한다는 것은 뜻밖이라고 김달삼은 점점 침착하여지며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통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항복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회담이 시작된 만치 이만한 조건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여야 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하여 주었다. 김달삼은 우리의 요구조건은 일단 수락하고 반란군 측의 제반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였다.

- 一. 單政反對
- 二. 濟州道民의 絶對自由 保障
- 三. 警察의 武裝解除
- 四. 濟州道內 官廳 高級官吏를 全面的으로 更迭할 것
- 五. 官廳 高級官吏의 收賄者를 엄중 處斷할 것(數十狀 되는 名簿를 提出하였다)
- 六. 道外 青年團體員의 山間部落 出入禁止

등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모든 조건은 나로써의 받을 수 없는 것뿐이므로 전면적으로 이를 거부하였고 다만 인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구호를 알선하고 범인의 일시적 구금만은 경비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외는 행정관리들에게 잘 주선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논쟁도 있었고 의견대립도 있었다.

### 萬事休矣! 總攻擊을 開始

결국은 경비대 측의 요구대로 통과를 보게 되었고 그들의 요구에 의하여 나는 나의 가족 전부를 一주일간 인질(人質)로써 그들이 내밀히 감시하기를 결정하였다. 한편 경비대 간부 일명과 병사 수명으로 조직된 분대를 많이 작성하여 전면적 무장해제를 단행할 것과 경비대는 산 밑에 분산 주둔하고 인민의 귀속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할 것을 결정하였다. 회의가 무사히 끝나갈 무렵 우리들은 악수를 하고 헤어지려 하였다. 김달삼은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어 자기 머리를 향하여 겨누고 며칠 남지 않았소 하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우리는 방에서 나왔다. 나는 웃는 말로 일이 잘 되었소. 만일 十여일만 더 계속하였으면 이 집 있는데 무장군이 올라왔을 것이다... 두 사람은 마주 웃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떤 의미로 보아 수만의 동지를 획득하였소. 이것은 경찰 경비대 사설청년단체 등이 절대로 협력하여준 덕택이기도 하오.....(사진 上은 작전본부, 下는 산사람들)

내가 경비대에 돌아온 것은 오후 四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대원들은 내가 살아 돌아옴을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내 자신도 기쁘기 한량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시작한 작전회의와 최고부의 명령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이제는 반란군의 근거지를 알았으니 곧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와 김달삼과의 회견은 하나의 전략(戰略)적인 것이라고 최고부에서는 말하였다. 나는 그 의도는 전략적이었으나 이 사건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하여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고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여 왔으며 모슬포에 있는 나의 가정에는 이날 밤부터 폭탄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동네 부녀자로 생각되는 여인들은 물동이에다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돌담 너머로 던지곤 하는 것이다. 나는 이 회담이 있는 얼마 후에 최고사령부 명령으로 모 지구에 전임(傳任)하였던 것이다.(끝)

一九四八年 六月